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656-01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특 화 가이드라인

인식과 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품격의 도시 부산

PUBLIC DESIGN GUIDELIN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제출문

본 보고서를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유원디자인연구소

목차

INTRO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개요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개요	04
-------------------	----

PART.1 수변도시 가이드라인

수변도시 개요	08
항만	09
어항	33
해수욕장	55
수변공원	68
하천	79

PART.2 보행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갈맷길 개요	94
갈맷길(수변형)	95
갈맷길(산지형)	103
갈맷길(도심형)	112

PART.3 공동체 도시 가이드라인

산복도로	122
------	-----

PART.4 실행력 확보방안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한 방안	134
도시 비우기 사업	135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개요

INTRO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개요

배경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2020) 심의대상은 공공시설물로만 구성되어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미흡하다.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통 가이드라인 내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등 구성요소별 가이드라인 항목 재정비를 통한 공공디자인 통합적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 공통 가이드라인 외에 부산광역시 내 중점적·특성별 관리 필요지역은 특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간적 특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한다.



구성체계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구성체계는 부산광역시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변도시, 보행친화도시, 공동체도시로 특화 가이드라인을 계획한다.



수변도시
가이드라인

PART. 1

수변도시 개요	08
항만	09
어항	33
해수욕장	55
수변공원	68
하천	79

수변도시 가이드라인

수변도시 개요

표본대상지 선정 · 부산광역시의 해양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화 가이드라인을 위해 항만, 어항, 해수욕장, 수변공원, 하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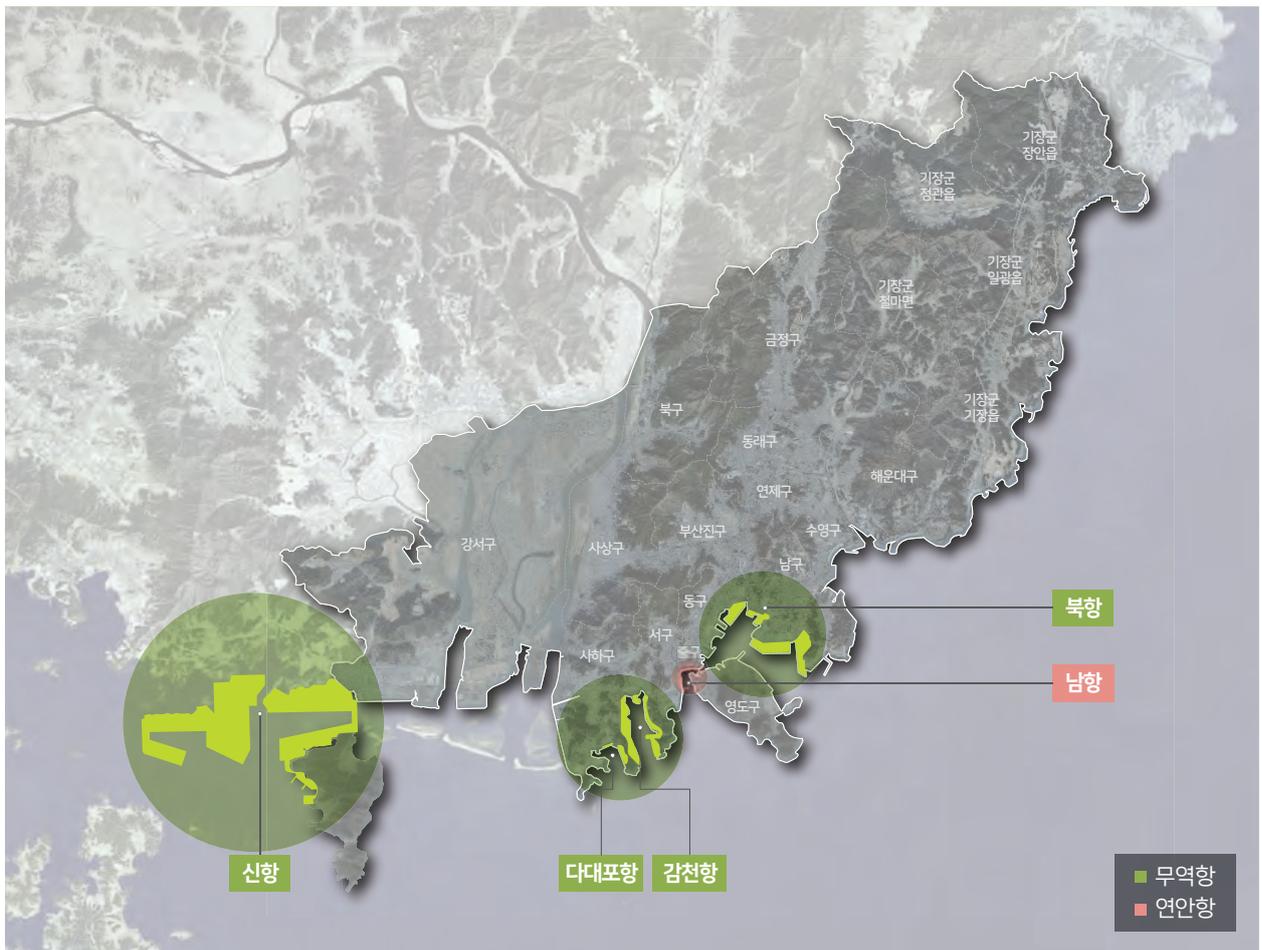
항만

정의

- 「항만법」 제2조에 따라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표본대상지 선정

- 항만의 유형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분류하고 있다. 무역항은 국민 경제와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이며, 연안항은 주로 국내 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 또한 국가(해양수산부)와 지방(지방항만공사)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 부산광역시 항만은 국가관리 무역항인 부산항(부산신항, 부산북항, 감천항, 다대포항)과 지방관리연안항(부산 남항)이 위치하고 있어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관리 무역항과 지방이 관리하는 연안항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그 외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 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현황 및 문제점

공공공간

1. 정돈되지 않은 항만 경계공간

- 펜스, 공급시설물과 어울리지 않는 편의시설로 공간 이용성이 저하된다.
- 보도와 접한 펜스에서 삭막함이 느껴져 쾌적하지 못한 보행환경이 형성된다.
- 노후된 어구보관시설과 시민 생활공간이 연접하고 있어 도시 품격이 저하된다.
- 녹슬고 낡은 장기 체류 어선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해안 경관을 훼손한다.



2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친수 시설

- 해수 범람으로 인해 부식된 바닥 재질이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공간을 연출한다.
- 친수 시설 전면부에 높은 펜스를 설치하여 개방적인 해안 조망을 훼손한다.
- 해안 조망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로 주변 여건과 휴식시설 간 연계성이 저하된다.
- 노후된 공공시설물로 친수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한다.
- 항만과 밀접한 공간에 휴식시설이 조성되었으나 해안가와 단절된 분위기를 형성한다.
- 쓰레기 무단투기로 친수시설 쾌적성이 저하된다.



공공시설물

1. 해안과 조화롭지 않은 시설물

- 원색의 장식적 요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해안과 부조화를 야기한다.
- 대형 시설물인 사일로 전체에 무채색을 적용하여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고채도의 색상을 사용한 펜스 및 건축물 입면으로 항만 주변 공간과 조화성이 저하된다.
- 노후된 벽면 및 쓰레기 적치로 정돈되지 않은 경계부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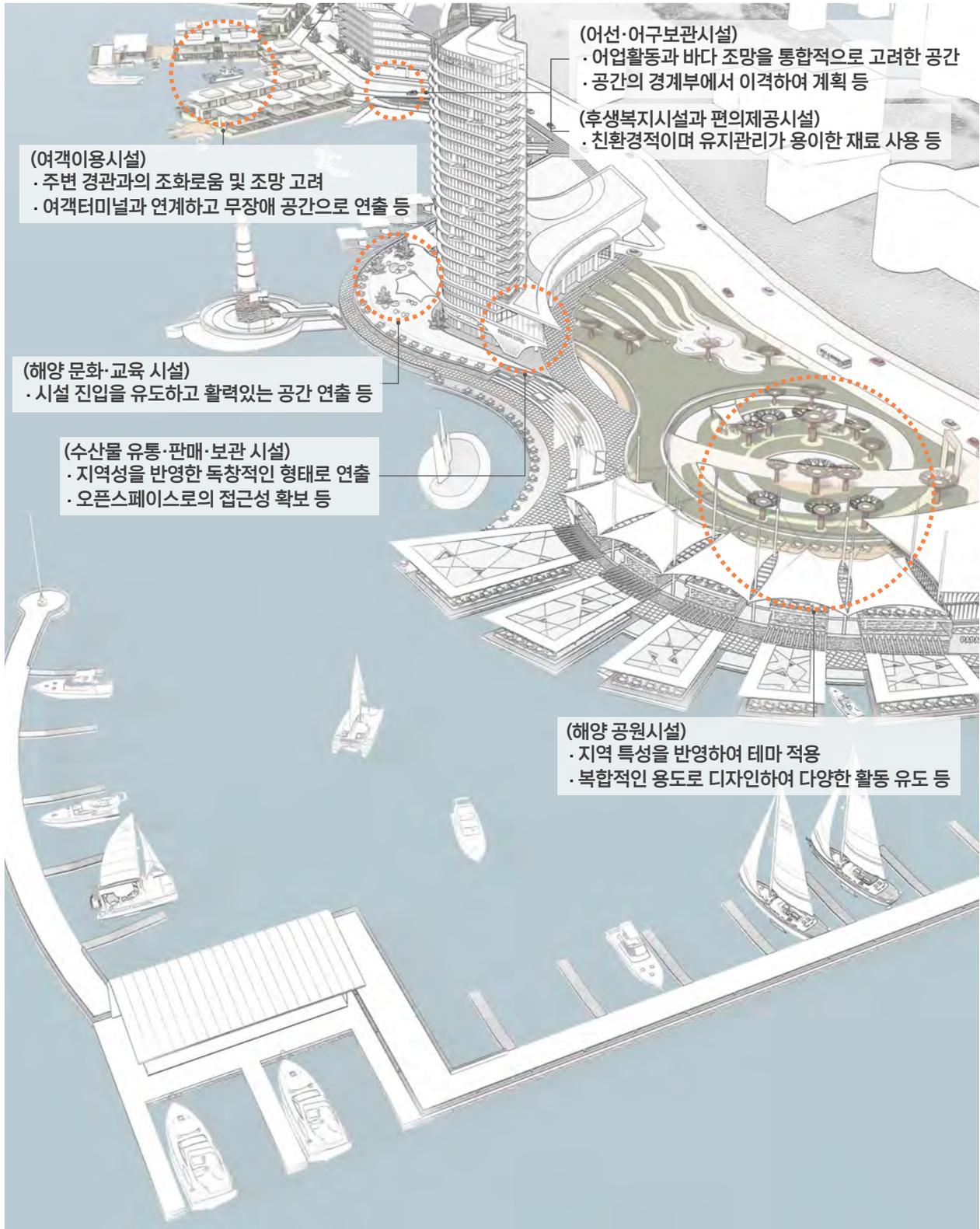
기본방향

- 배후지역의 지형, 녹지, 동선 등과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보행자를 위해 수변, 공원, 녹지 등 주요 공간과 연계되도록 배치한다.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 항만공간을 연출하기 위한 녹지공간 및 녹지축을 계획한다.
- 항만 종사자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수변에 주차장 배치를 지양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수변 이용성을 높인다.
- 수변으로의 보행로를 확보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수변은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성을 높인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부산다운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지침으로 작성한다.

가이드라인 분류	대분류	소분류	페이지번호
특화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여객이용시설	p.15
		어선·어구보관시설	p.18
		수산물 유통·판매·보관시설	p.21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p.25
		해양 문화·교육시설	p.28
		해양 공원시설	p.30



공공공간

여객이용시설 * 여객터미널, 외부공간 등

주변 경관과 조화로우름과 조망 고려

- 여객이용시설은 선상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주변 지형에 순응하여 디자인한다.
- 여객터미널 등의 건축물은 지형적인 특성을 살려 전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시설의 외부에는 광장,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충분한 녹지를 확보한다.
- 외부공간에 조망, 휴식, 레저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친수공간을 확보한다.
- 건축물에는 주변 경관의 조망을 고려하여 전망공간을 확보한다.
- 여객이용시설물은 여객터미널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일관성 있고 통합된 디자인으로 시설의 효율성을 높인다.



주변 지형에 순응하여 디자인



지형적인 특성을 강화한 건축물



충분한 녹지 확보

여객터미널과 연계하고 무장애 공간으로 연출

- 여객이용시설은 기능과 무관한 디자인 및 장식적 요소의 도입을 지양한다.
- 여객터미널은 직접적 형상을 지양하고 구조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한다.
- 승·하선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한다.



구조미를 고려한 건축물



장식적 요소 도입



계단 단차로 보행약자 탑승 불가

● 필수 ○권장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친수공간 조성

- 여객터미널 건축물 일부 또는 옥상을 활용하여 전망공간을 조성한다.
- 건축물 진입부에는 게이트, 조형물, 식재 등을 계획하여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간결한 형태,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 수변과 조화롭게 디자인한다.
- 전망공간 주변은 녹화 및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 외부공간에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품 등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한다.
- 공공시설물은 개방적인 형태로 하고 통합디자인으로 연출한다.



전망공간 조성



게이트 계획으로 인지성 강화



전망공간 녹화

보행동선 및 공공시설물과 연계 배치

- 공공시설물은 보행약자 등의 이용자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편의시설물은 휴게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하되 적정 거리를 확보한다.
- 편의시설물은 연접한 공공시설물과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보행을 고려하여 시설물 배치



휴게시설, 편의시설물 인접 배치



시설물 동일선상에 배치

● 필수 ○ 권장

수변 지역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용이한 재료 사용

- 공공시설물은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안전이 우선되는 지역은 보행약자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펜스 등 안전시설물의 충분한 높이를 확보한다.
- 휴게시설물은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친밀감이 느껴지도록 한다.
- 안전시설물은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무광 처리한다.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



무광 처리한 안전시설물 ○



충분한 높이를 미확보한 시설물 ✕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색채 적용

- 이동시설은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캐노피는 저채도 색채를 적용한다.
- 관리시설물과 조명시설물은 무채색 또는 저채도의 단색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하며, 빛반사를 고려하여 무광으로 표면을 처리한다.
- 안전시설물은 한 공간에서 유형 및 색채를 통일하여 연속성을 확보한다.



안전시설물 색채 통일 ○



고채도 색상 적용 ✕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조명 ✕

● 필수 ○권장

어선·어구보관시설 * 어선건조장, 어선수리장, 보관시설 등

어업활동과 바다 조망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 어선과 어구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단차가 없는 평지에 계획한다.
- 어업활동을 위한 기능 시설물로 바다에서 조망되지 않는 곳에 계획하며, 운반 및 배송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하역공간 진입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획한다.



단차없는 평지 내 계획



조망공간 내 설치된 보관시설



해안 조망을 훼손하는 보관시설

공간의 경계부에서 이격하여 계획

- 어선·어구보관시설은 보행공간 및 주변의 타 시설물의 경계부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어구 보관 및 적치가 용이하도록 완충공간을 둔다.
- 시설 경계부에는 식재 조성 및 펜스 설치 등으로 차폐하여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경계부 펜스는 간결한 형태 및 색채로 하고 경계부를 녹화한다.
- 건축물 주변을 녹화하여 이질감 발생을 최소화한다.



보도와 연접한 어구보관시설



차폐되지 않은 어구보관시설



녹지 부재로 이질감 발생

● 필수 ○권장

어선·어구보관을 위한 시설 공간 확보

- 대규모 어선·어구보관시설은 시각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을 통일하여 연속성을 확보한다.
- 소규모 창고는 주변 경관에 순응하도록 배치하며, 경관을 저해하는 조립식, 컨테이너 등의 건축 구조는 지양한다.
- 규모에 따라 대규모 창고는 분동 또는 분절(형태, 색채, 재료, 패턴 등)하여 위압감을 완화 시키며 소규모는 부분적 요소의 강조 또는 분절 등을 지양한다.
- 항만 내 어선·어구보관을 위한 시설을 반드시 계획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 어선·어구보관시설은 통풍을 위한 통풍구를 확보하고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다.



컨테이너식 건축 구조 적용



위압감을 형성하는 건축물



어구보관시설 부재

시각적 거부감이 없는 기능을 우선으로 디자인

- 캐노피 등의 구조물은 슬림한 형태로 하고 철골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해수유입을 위한 배수관 등을 내부에 계획하되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입면에 변화감을 부여하되 복잡한 패턴이나 색채는 지양한다.
- 실외기 등의 부속시설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차폐한다.
- 태양광 시설을 적용할 시 건축물 입면 또는 지붕 등과 일체화하여 디자인한다.



슬림한 형태의 구조물



지붕과 일체화한 태양광 시설



복잡한 색채 적용

● 필수 ○ 권장

정돈된 향만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디자인 적용

- 어선·어구보관시설 건축물의 외장재는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샌드위치 패널 등 미관을 저해하는 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 셔터, 출입문 등의 부대시설과 건축물은 일체감이 들도록 유사한 재료를 권장한다.
- 어선 건조 및 수리를 위한 시설은 단순한 형태 및 저채도 단색으로 연출한다.
- 입면 및 지붕에는 과도한 색채, 그래픽, 홍보문구, 로고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출입문 및 셔터 등의 부속시설에 강조색을 적용할 수 있다.
- 어구 등을 가리는 덮개는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의 단색으로 디자인한다.
- 어선·어구보관시설물은 시각적으로 산만하지 않도록 하며 2가지 이하의 색채를 사용한다.
- 외관은 과도한 그래픽이나 홍보 문구의 사용을 지양한다.



2가지 이하의 색채 사용



샌드위치 패널 적용



과도한 색채를 사용한 지붕

● 필수 ○권장

수산물 유통·판매·보관 시설

* 수산물 위판장·직매장, 수산물 집하장, 활어보관시설, 외부공간 등

오픈스페이스로의 접근성 확보

- 시설 건축물 연접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 외부공간은 다양한 기능 및 시설을 활용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바다로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 외부와 연결된 공간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대규모 주차장 설치를 금지한다.
- 외부공간은 주차장 설치 최소화 등 친환경적이고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 수산물 시장의 입구는 보행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



오픈스페이스 확보



활력 있는 공간 연출



외부공간 주차장 설치

지역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형태로 연출

- 수산물 시장은 경관 테마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 단순화 할 형태의 디자인으로 적용하고 직접적인 형상을 지양한다.
- 수산물 시장은 바다조망을 위한 전망공간을 확보하고 경관테마와 연계하여 디자인한다.



경관 테마를 반영한 디자인



단순화한 형태 적용



전망공간 확보

● 필수 ○권장

부대시설 등과 일체화된 디자인

- 부속 건축물은 수산물 위판장과 디자인을 연계하고 바다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수산물 위판장은 가급적 벽체가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결한 형태 및 색채로 연출한다.
- 벽체가 없는 구조는 슬림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기둥은 부드러운 형태로 처리한다.
- 조립식, 컨테이너 등의 미관을 저해하는 형태를 지양하며 셔터, 출입문 등의 부대시설과 건축물은 일체감이 들도록 디자인한다.
- 부속시설물은 시각적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옥외광고물은 통일성 있게 디자인한다.



위판장과 연계한 부속 건축물



벽체가 있는 구조 적용



부드러운 형태의 기둥

시각적 거부감이 없도록 디자인

- 캐노피 등의 구조물은 간결한 형태로 하고 철골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어패류의 보관 및 운반 용기는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 해수 유입을 위한 배수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수산물 시장은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인 요소의 부착을 지양한다.
- 입면에 변화감을 부여하되 복잡한 패턴이나 색채는 지양한다.
- 옥외광고물은 크기 및 수량을 최소화하고 디자인을 통일한다.



철골조 노출



장식적 요소 부착



정돈되지 않은 옥외광고물

● 필수 ○ 권장

진입을 유도하는 활력있는 공간 연출

- 진입부는 게이트, 사인, 포장 등을 차별화하여 진입을 유도한다.
- 진입광장은 이벤트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연출한다.
- 진입부는 포토스팟 등의 상징공간을 확보하여 활력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



진입부 차별화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진입광장



상징공간 확보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디자인

- 수조시설은 외부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노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실외기 등의 부속시설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차폐한다.
- 친환경 건축물을 위해 태양광시설 설치 시 돌출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지양하며, 건축물 지붕 등과 일체화한다.



태양광시설 지붕과 일체화



수조시설 외부 돌출



실외기 외부 노출

● 필수 ○ 권장

친환경적이며 유지관리 용이한 재료 사용

- 건축물의 외장재는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샌드위치 패널 등 미관을 저해하는 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 셔터, 출입문 등의 부대시설과 건축물은 일체감이 들도록 유사한 재료를 권장한다.



샌드위치 패널 사용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부대시설과 건축물 일체화

해안과 조화로운 시설 색채 계획

- 수산물 시장 외관 및 내부 수조시설의 덮개는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의 단색으로 디자인 할 것을 권장한다.
- 각종 공공시설물은 시각적 산만함을 주지 않도록 저채도를 사용하되 2가지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시인성이 좋은 색채를 사용한다.
- 수산물 시장 외관은 과도한 그래픽이나 홍보 문구의 사용을 지양한다.



고채도의 원색 사용



시인성이 좋은 색채 적용



단순한 그래픽 사용

● 필수 ○ 권장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 근로자휴게소, 주차장, 주차타워, 화장실

자연친화적인 공간 연출

-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건축물은 입면에 변화감 있고 친밀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연출한다.
- 주차공간은 해안변 또는 해안변에서 조망되는 곳에 배치되는 것을 지양한다.
- 주차타워는 구조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녹화한다.
-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은 자연재료 사용 및 녹화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 주차장, 화장실 등 부속건축물 경계부는 담장과 펜스 설치를 지양하고 녹화를 권장한다.



기능을 고려한 쾌적한 공간 연출

- 모든 시설물은 수변에서의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유형을 선정한다.
- 편의시설은 주요 시설 및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며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한다.
- 근로자휴게소는 작업장과 공간적,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연출한다.
- 근로자휴게소는 경관을 저해하는 조립식, 컨테이너 등의 건축구조를 지양한다.
- 임시휴게소는 주간 및 야간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화장실은 이동식을 제외하고 임시 또는 가설 형식을 지양한다.



● 필수 ○권장

항만 종사자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연출

- 근로자휴게소는 휴게 및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연출한다.
- 휴게 및 편의시설은 항만 종사자 간의 활력있는 커뮤니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요 보행통로 내에 배치한다.
- 근로자휴게소는 화단이나 정원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 힐링 공간으로 조성한다.
- 주차타워 등 부속건축물 외부공간에 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 친밀감을 부여한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연출



정원 도입



문화공간 조성

부속시설 통합 및 이용자 안전성 확보

- 주차장은 구역별로 색상을 다르게 적용하고 주차위치 안내표식을 설치하여 안전성 및 식별성을 높인다.
- 주차면 사이에 보행통로를 설치하고 보행 안전지대를 확보한다.
-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계획하여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난간 등의 안전시설은 개방적인 형태로 하고 저채도의 단색으로 연출한다.
- CCTV 등의 지주시설은 통합 설치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구현한다.
- 외부에 설치되는 공공화장실 등은 가설 형식을 지양하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출입문, 창호 등은 건축물과 유사색을 적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로 연출한다.
- 시설 입구 가림벽 설치 시 건축물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높이를 최소화하여 디자인한다.



구역별로 색상 다르게 적용



보행통로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계획

● 필수 ○ 권장

누구나 쉽게 인지하도록 디자인

- 부속시설물은 사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하고 야간 이용을 고려한 조명을 조성하여 활력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림벽은 녹화 등 친환경적으로 연출하고 시인성을 향상시킨다.



부속시설물 조명 확보



국가표준 픽토그램 활용



가림벽 친환경적으로 연출

친환경적이며 유지관리 용이한 재료 사용

- 시설 내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시인성이 좋은 안전 색채를 사용한다.
- 시각적 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조색은 저채도 색채 사용을 권장하며, 항만 종사자의 활기를 위해 건축물 면적의 5~10%에는 강조색을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장재는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화장실은 목재, 석재, 금속재, 투명재 등 특정 재료를 활용하여 차별화할 수 있다.
- 출입문, 창호 등은 건축물과 유사색을 적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로 연출한다
- 각종 공공시설물은 시각적 산만함을 주지 않도록 저채도를 사용하되 2가지 이하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강조색 적용



안전 시설물 안전 색채 사용



공공시설물 저채도 사용

● 필수 ○권장

해양 문화·교육 시설 * 홍보관,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공연장, 학습장 등

지역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디자인 연출

- 외부공간은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 부속시설은 본동과 디자인을 연계하고 과도한 구조물 설치를 지양한다.
- 지리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성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획일적이지 않은 공간을 위해 과도한 규모 및 단일 형태로 조성하지 않도록 한다.
- 바다 조망을 고려하여 해양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전망공간을 확보한다.
- 매표소 등 부속시설은 해양 문화·교육 시설과 디자인을 연계하여 계획한다.
- 게이트, 캐노피 등의 구조물은 과도한 형태 및 색채를 지양하고 간결하게 연출한다.
- 친수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진입부 광장, 전망대, 포토 스폿 등의 상징시설을 확보한다.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부속시설 디자인 연계



개성 있는 형태로 디자인



진입부 광장 등 상징시설 확보



전망공간 확보

● 필수 ○권장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바다에서부터 자연풍경이 이어지도록 공원 및 녹지를 충분히 확보한다.
- 외부공간은 풍부한 녹지를 확보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연출한다.
- 외부공간에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다.
- 경계부는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옹벽 등의 과도한 구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형에 순응하도록 한다.



녹지 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연출



경계부 담장 설치 지양



지형에 순응하는 디자인

시설 진입을 유도하고 활력있는 공간 연출

- 진입부는 게이트, 사인, 포장 등을 차별화하여 진입을 유도한다.
- 진입광장은 이벤트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연출한다.
- 진입부는 포토 스폿 등의 상징공간을 확보하여 활력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



진입부 디자인 차별화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진입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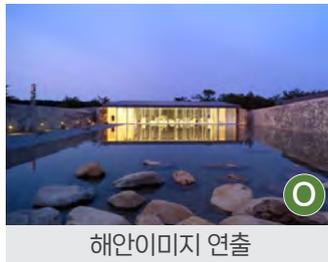


상징공간 확보

● 필수 ○권장

자연친화적인 재료 및 색채 적용

- 건축물의 외장재는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자갈, 모래, 돌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해안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연출한다.
- 화장실은 목재, 석재, 금속재, 투명재 등 특정 재료를 활용하여 차별화할 수 있다.
- 매표소 등의 부속시설은 해양 문화· 교육 시설과 형태, 색채 등의 디자인을 연계한다.
- 게이트, 캐노피 등의 구조물은 과도한 색채를 지양하고 구조적으로 간결하게 연출한다.



해양공원시설 * 해양 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테마 적용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시설로 차별화한다.
- 해양전망대 등의 주요 시설은 테마를 반영하여 독창적인 형태로 디자인한다.
- 공공시설물은 테마를 반영한 통합디자인으로 일관성을 확보한다.



● 필수 ○권장

주변 토지이용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공간 연출

- 충분한 녹음을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주변 토지이용과 연계한 공간 및 시설을 도입한다.
-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간결한 형태 및 색채로 연출한다.



충분한 녹음 확보



주변 토지와 연계한 공간



간결한 형태 및 색채 연출

복합적인 용도로 디자인하여 다양한 활동 유도

- 친수공간은 해안과 인접하고 수변 조망이 가능한 장소에 조성한다.
-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 등으로 구분하여 연출한다.
- 공원은 체험, 교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동을 유도한다.
- 광장은 모임, 축제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구조로 연출한다.
- 산책로는 자연스러운 선형을 따라 관람, 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도입한다.



수변 조망이 가능한 장소에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선형 공간으로 시설 도입

● 필수 ○권장

커뮤니티를 고려한 열린 공간 조성

- 해양공원시설은 문화광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여 이용성을 높인다.
- 해양공원시설의 경계부는 개방적인 형태로 하고 휴식공간, 문화공간을 도입한다.
- 해양공원시설은 전시, 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벤트의 장으로 연출한다.



커뮤니티 시설 도입



개방적인 형태의 휴식공간 도입



다채로운 프로그램 도입

임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식재계획

- 수목은 바람에 의한 건조 피해와 염해에 강하고 이식이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
- 녹지공간은 가급적 식재밀도를 높게 하여 방풍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안변 해수 차단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염해에 강한 수종 선정



방풍기능 확보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필수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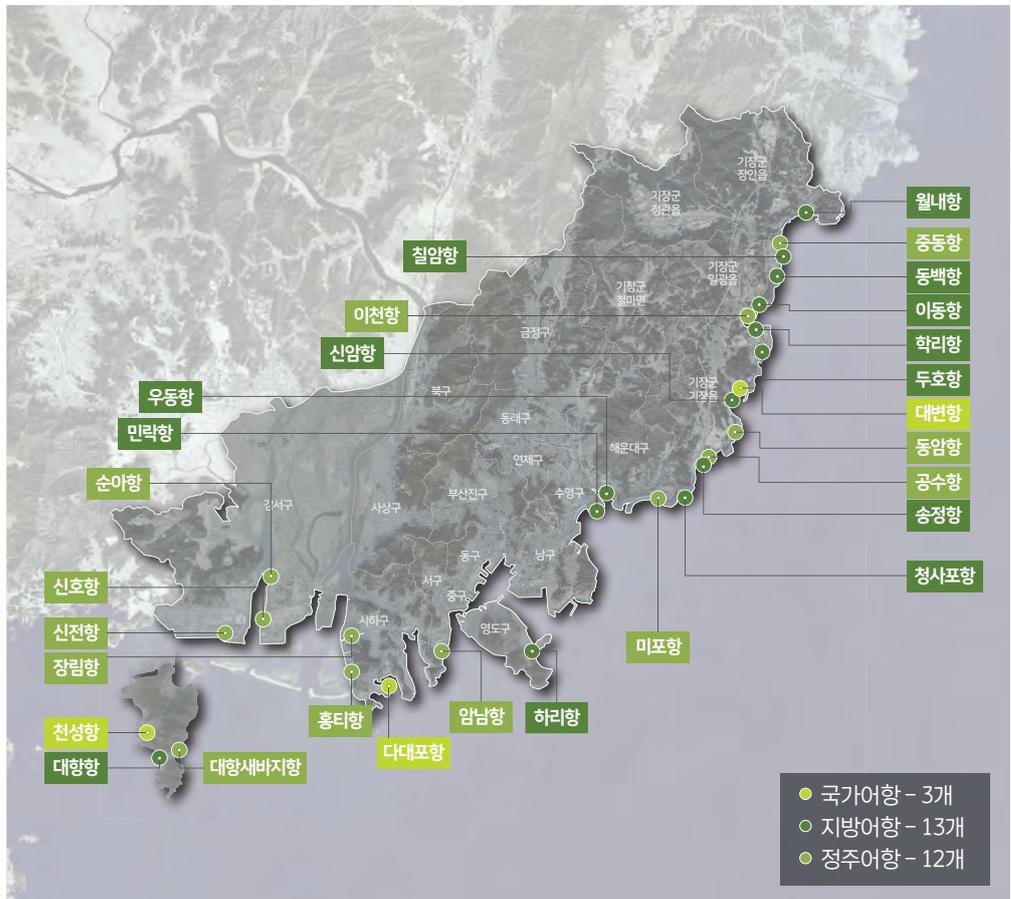
어항

정의

- 「어촌·어항법」제2조에 따라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국가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이 있다.

표본대상지 선정

-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어항 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 등에 대해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에 적용하며 공공디자인을 위한 설계, 시공, 관리 시 심의, 자문, 협의 등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 여가 및 편익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에 대한 공공디자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대상으로 한다.
- 그 외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가 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현황 및 문제점

공공공간

1. 어구, 자재 등 어항 시설물이 적치된 경계부

- 어항 시설물이 정돈되지 않은 채로 보도에서 조망되어 혼재된 인상을 야기한다.
- 쓰레기가 경계부에 적치되어 지저분한 어항시설이 조성된다.
- 해안 조망공간 옆 불법 적치물로 쾌적하지 않은 인상을 준다.
-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로 전망공간이 단절된다.
- 해안가 산책로 옆 어구 보관으로 정돈되지 않은 해안경관이 연출된다.



2. 수변 조망을 훼손하는 주차장

- 어항 관련 차량 주차장이 수변부로 조성되어 산책로 접근성을 제약하고 해안경관을 훼손한다.
- 어항 광장 내 주차된 차량으로 정돈되지 않은 어항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시설물

1. 해안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장

- 시각적으로 분절되지 않은 건축물로 인해 위압감을 형성한다.
- 과도하게 큰 간판으로 인해 미관을 해친다.
- 특색 없이 일률화된 입면으로 위압적인 장방형 건축물을 조성한다.
- 저명도의 무채색 적용으로 해안과 조화성을 저하한다.
- 간이 건축물 증축 및 저채도 색상 적용으로 해안과 조화롭지 않은 건축물을 조성한다.



기본방향

- 어업인의 활기찬 일터로서의 어항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감성을 채우는 국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어항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바다 조망을 고려한 시설 배치 원칙을 수립한다.
- 수변부의 조망성과 친수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어항별 역사성과 고유성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공존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 보편적인 디자인과 시인성을 높이는 디자인 전략을 수립한다.
-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한다.
-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정돈되고 깨끗한 어항 경관을 연출한다.
- 과도한 장식과 색채를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연출한다.
- 다른 시설물과의 통·폐합된 디자인을 추구하여 공간의 효율성과 쾌적성을 높인다.
- 수변으로의 접근 및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디자인으로 연출한다.
- 모두에게 열린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활력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 부산다운 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지침으로 작성한다.

가이드라인 분류	대분류	소분류	페이지번호
특화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경계공간	p.39
		수송공간	p.42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	p.43
		항행보조시설	p.44
		어선·어구 보관시설	p.45
		수산물 유통판매보관시설	p.46
		복지시설	p.48
		관광객 이용시설	p.51
		공공시각매체	안내시설물
	옥외시설물		p.54



공공공간

경계공간

건축물의 규모, 형태, 색채 등 상호 조화 도모

- 어항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한다. (단,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록 절제한다.)
- 지붕의 형태와 높이, 형식, 재료, 색채 등에 있어 거리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파사드(대문, 창문, 어닝 등 전면부의 이미지)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 건축물, 펜스, 가로등, 블라드, 가로수 등 수직적 요소를 활용하여 경계표시를 할 수 있다.
- 배수 트렌치, 바닥포장, 녹지, 경계석, 광장, 주차장 등 수평적 요소를 활용하여 경계표시를 할 수 있다.



주변과 조화로운 경계공간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파사드



펜스를 활용한 경계표시

간결한 멋과 질서, 독창성이 있는 옥외광고 문화 창조

- 어항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간결한 디자인, 질서 있는 간판문화를 지향한다.
- 지나치게 큰 규모와 원색 사용 등으로 해변 경관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지역 특산물의 조형물 및 사진, 플래카드, 창문형 옥외광고물, 풍선 광고물 등의 홍보를 위한 시설물은 지양한다.



간결한 디자인 적용



원색 사용한 간판



특산물 실물 사진 사용

● 필수 ○권장

쾌적한 보행환경과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

- 허가받지 않은 판매시설, 보관시설 및 각종 적치물, 광고물 등으로 인한 보행약자의 보행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구역 내 가로등, 볼라드, 펜스, 표지판 등 각종 공공시설물은 통합하여 디자인하며, 간결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 바닥포장의 색과 재질 선정 시 복잡하고 산만한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 경계부의 경관이 어구, 자재 등 각종 적치물의 시각적 노출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시각적 차폐가 필요한 경우 펜스 설치, 수목 식재, 화분 놓기 등의 방법으로 차폐하되 미관 향상을 도모한다.
- 나대지, 방치된 공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도로의 경우 차도와 보도를 분리 배치하도록 하고, 보행이 많은 곳은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포장을 한다.
- 건축물 전면공간에 주차장 배치를 지양한다. 이를 위해 공용주차장의 확대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경계부의 도로 및 국가어항 입구 주변은 고원식 횡단보도 등 차량 속도 저감 방법을 적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경계부에 주차장이 위치하는 경우 녹지 화단, 잔디 포장 등 쾌적한 이미지 창출을 강구한다.
- 경계부 건축물의 경우 에어컨 등 설비시설의 배치 및 직접적 노출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덮개를 설치한다.
- 어항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전선 지중화를 권장한다.



보행권을 보장하는 거리환경



주차장 잔디 포장



차도와 보도 분리 배치



고원식 횡단보도 구축



쓰레기 적치로 경관 훼손



전면공간에 주차장 배치

● 필수 ○ 권장

경계공간 * 입구광장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공간계획

- 어항으로 진입을 위해 어업인과 관광객 모두가 사용하는 대표성있는 공간으로 최소 1개 이상의 입구광장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장애인, 노약자, 휠체어, 유모차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한 구조와 시설을 갖춘다.
- 보행전용공간을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속도저감 포장 등을 적용한다.
- 보행약자를 위하여 보행친화형 바닥포장 및 안전펜스를 계획한다.
- 보행전용인 입구광장의 경우 차량의 승·하차를 위한 공간을 도입한다.



입구광장 확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구조



차량 승하차 공간 도입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어항 조성

- 바다 조망을 가리는 건축물, 불필요한 표지판, 플래카드, 어구, 주·정차된 차량, 불필요한 캐노피와 퍼걸러, 과도한 규모의 조형물과 안내판 등은 설치를 지양한다.
- 입구광장부 공간에는 어구, 자재, 쓰레기 등 각종 적치물의 시각적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을 추구하며 불필요한 장식은 하지 않는다.
- 시설은 고풍택, 고채도, 고명도의 색채를 지양하고 무채색 계열, 친환경 재료로 마감한다.
- 시설 주변으로 쓰레기 적치, 규칙을 어긴 수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CCTV 등 감시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개방적인 바다 조망 유지



간결한 디자인 적용



친환경 재료로 마감

● 필수 ○권장

수송공간

여유롭고 쾌적한 어항을 위해 수변 연접부 주차공간 지양

- 어항 내에는 가급적 어업 관련 목적 차량과 긴급차량만 주차하도록 한다.
- 관광객의 주차, 장기주차는 가급적 어항 경계부에 이루어지도록 전용주차장을 배치한다.
- 주차는 주차라인이 표시된 구역에만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변부의 코너구간 등 주차 절대 금지구역을 바닥에 표시한다.
- 주차장에 어구 등의 적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바다 조망성, 보행 연속성 등을 위해 수변부에 주차장 배치를 지양한다.



경계부 내 관광객 주차장 배치



주차라인 표시 구역 내 주차



주차 금지구역 바닥 표시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주차장 디자인 계획

- 열섬현상 및 인공성 완화를 위해 녹지(가로수, 잔디 등)의 도입, 캐노피시설 및 태양광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주차 빌딩의 경우 친환경건축물을 지향하고 경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관으로 계획한다.
- 표지판, 펜스, 티켓부스 등 주차 관련시설은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하며 고채도 및 고명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한다.
- 주차장 안내표지판의 형태는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재나 동·식물 등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지 않는다.
- 주차장 안내표지판은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다국어 표기가 어려운 장소에는 픽토그램의 사용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주차장 내 녹지 도입



친환경 주차 빌딩 계획



간결한 디자인의 표지판

● 필수 ○ 권장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공공간 조성

- 어항 내외부에 면한 해안자연과 바다조망은 공공의 자산이자 보전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존중하고 보호한다.
- 어항 조망, 친수활동, 산책 등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과 여건을 조성한다.
- 여가 및 편익시설 공간과 어업공간은 적정하게 분리하여 각 공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충분한 안전시설과 조명시설 등 주·야간 안전한 환경을 구축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육(독서, 교육, 놀이, 공연, 전시 등) 시설 또는 공간을 도입한다.



친수시설 조성



여가공간과 어업공간 분리



주·야간 안전한 환경 구축

보행자가 배려받는 어항 추구

- 일부 구간에 한해 자동차, 어업활동이 배제된 보행자 우선구역 또는 보행자 전용구역을 확보한다.
- 수변부를 중심으로 한 연속적인 산책로 또는 어항 안팎으로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 전용구역 확보



연속적인 산책로 조성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 구축

● 필수 ○권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어항 경관 형성

-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되 과도한 이미지로 표현되지 않도록 한다.
- 쾌적한 어항경관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녹지의 도입, 천연 재료의 사용 등을 권장한다.
- 각종 시설물의 통폐합 디자인을 지향하며 시설물의 디자인은 바닥 및 타 시설물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간 및 시설물의 계획에 있어 관찰자의 조망 대상과 방향, 범위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다.
- 시설물의 규모, 색채 등이 조망활동에 방해를 주거나 조망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규모와 재료 선정에 있어 휴먼스케일을 고려하고 마감처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지역 개성과 고유성 고려



적극적인 녹지 도입



시설물 최소화로 개방적인 조망

항행보조시설

과도한 디자인 지양 및 구조미

- 지역성을 반영한 특산물, 동·식물의 사실적/과잉적 디자인을 지양한다.
- 과도하게 비틀어진 곡선이나 불필요한 장식, 일부 계층에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편한 디자인 등을 배제한다.
- 현란한 그래픽 사용을 지양하고 간결한 패턴으로 연출한다.
-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간결한 패턴 연출



동식물 사실적 디자인 적용



복잡한 형태로 디자인

● 필수 ○ 권장

보행자를 위한 휴먼스케일 고려

- 등대 하단의 형식에 있어서 방파제 공간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너트나 볼트 등 각종 부속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등대는 방파제 보행자에게 시각적 초점이자 보행의 목표물로서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접촉하므로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계단, 전망공간, 포토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부에 각종 표지판 부착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량과 크기를 최소화하며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구석진 공간을 가급적 만들지 않도록 한다.



전망공간 설치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계단 설치



펜스로 인해 차폐공간 출입불가

어선·어구 보전시설

어항의 어구창고에 통일감 부여

- 「국가어항 기능편익시설 표준설계」에서 제시된 표준모델을 우선 적용한다.
- 특화디자인을 별도로 시도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 또는 유사성격의 심의를 수행한다.
- 특화디자인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재질과 강조색 도입, 숫자·그래픽 등으로 차별한다.
- 노출콘크리트 질감의 패널, 목재 질감의 패널 등 재료의 특성을 통해 차별화를 유도한다.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



목재 질감 패널 사용



노출콘크리트 사용

● 필수 ○권장

대규모 건축물 위압감 완화

- 대규모 창고는 분동 또는 분절하여 위압감을 완화한다.
- 소규모 창고들이 연립하여 대규모 창고를 형성하는 경우 규칙적인 간격으로 문과 창문 등을 설치한다.
- 인공적인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하여 강조색을 도입할 수 있으며 창고 번호를 그래픽요소로 활용한다.
- 창고 사용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사인물을 통일감 있는 디자인과 위치로 부착한다.



분동 또는 분절로 위압감 완화



강조색 도입



통일된 디자인의 사인물 부착

수산물 유통판매보관시설 * 수산물시장, 수산물위판장, 수산물직매장, 수산물집하장 등

조화롭고 매력적인 공간 디자인

- 대규모 입면을 지닌 건축물인 경우, 패턴에 의한 분절, 넘버링, 자연 질감의 재료 마감 등을 통해 압박감과 인공성을 완화한다.
- 기둥, 지붕, 파사드 등 다양한 요소들의 통일감과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 과도한 색채, 지역의 상징성 등 과잉장식과 과대 간판을 배제하고 구조미를 강조한다.
- 옥외광고물은 최소 규모, 입체글자, 조명기능을 지향한다.
- 위판장 등의 건축물과 소형선 부두의 통합 디자인을 권장한다.
- 해수유입 배수관 등 설비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커버를 씌운다.



자연 질감 재료 마감



통일감과 일체감 있는 디자인



최소 규모의 옥외광고물 적용

● 필수 ○권장

광장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성 확보

- 시설의 주변 공간이 주정차 차량으로 둘러싸이지 않도록 한다.
- 시설 주변으로 광장, 녹지화단, 친수공원 조성으로 쾌적함을 제공한다.
- 바다를 향한 열린 공간계획을 지향하고 테이블, 벤치 등의 배치에 있어서 바다 조망 및 어항 풍경을 고려한다.



녹지화단 구축



친수공원 조성



바다 조망을 고려한 공간계획

융·복합적 계획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구성 도모

- 장애인, 노약자, 휠체어, 유모차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한 구조와 시설을 갖춘다.
-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붕 등의 시설을 갖춘다.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부담 없는 쇼핑과 선택, 상인의 다양한 업종 구성 등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공간을 지향한다.
- 상인들이 지나친 호객행위 및 경쟁적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판매시설의 공간구성을 통합적으로 배치한다.
- 옥상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교육 등의 기능과 결합을 시도한다.



공간구성 통합적으로 배치



공용 이용 식당공간 배치



옥상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 필수 ○권장

복지시설 *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쾌적한 외부공간과 단정한 건축디자인 및 융·복합 공간 지향

-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유희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 건축물 경계부에는 보도, 광장, 녹지, 조경, 담장 등을 조성하여 어항 경관향상에 기여한다.
- 건축물 외벽에는 고채도의 도색이나 슈퍼그래픽을 적용하지 않으며, 돌, 유리, 알루미늄, 점토블록, 목재 등 재료가 지닌 고유 이미지 활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간판은 과도한 규모와 고채도를 지양하며, 적당한 규모로 단정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누구나 접근하기 편리한 시설 디자인

-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휴게공간과 시설을 마련한다.
- 바닥면의 단차가 없게 설계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단, 경사면과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유리창, 중정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강구하여 내부가 인지되는 개방적인 이미지로 공간을 구성한다.
- 로비는 이용자에게 개방적이고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밝은 조도를 유지한다.
- 화장실의 경우, 건축규모 기준 외에 관광객의 사용까지 고려한다.
- 장애인 주차공간을 포함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에서 청사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공간에는 다국어 정보 병기 및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 외국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국제겸용 공중전화나 정보검색코너 설치 등을 권장한다.



● 필수 ○권장

복지시설 * 근로자 쉼터

상징성 부여 및 친근한 이미지 추구

- 친근한 이미지의 공간 추구를 위해 경사형 지붕, 벽돌 마감 등으로 안락한 쉼터를 조성한다.
- 거친 파도와 차가운 바닷바람이 있는 어항에 아늑하고 안락한 공공 쉼터를 설치한다.
- 한쪽 공간에 해당 어항의 역사, 사진, 어업도구 등을 전시하여 소개/기념한다.



친근한 이미지 추구



안락한 공공 쉼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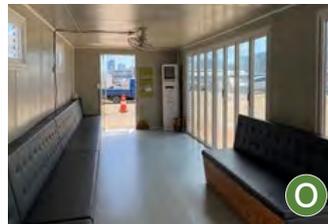
전시공간 마련

다른 용도의 시설과 통합하여 디자인

- 일교차, 기온차이가 심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벽면은 개폐가 원활한 구조로 계획한다.
- 샤워실, 족욕장, 세탁기, 건조기 등 샤워시설과 세탁시설을 설치한다.
- 주점, 음식점, 판매점은 혼용하지 않는다.
- 어항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영화관, 관광 정보안내센터, 매표소, 기념품점, 카페 등과 혼용할 수 있다.
-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온열기 및 송풍기 등 냉난방 시설을 도입한다.
-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배치를 권장한다.



개폐가 원활한 구조의 벽면



냉난방 시설 도입



의자와 테이블 배치

● 필수 ○ 권장

복지시설 *화장실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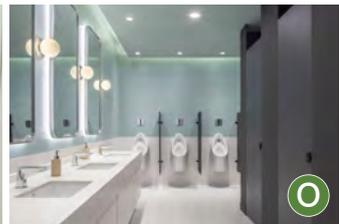
- 공공화장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하여 디자인한다.
- 화장실은 개방적인 공간에 배치하며 입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내부는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조도, 창문, 마감재 등을 계획한다.
- 누구나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먼스케일에 맞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 안내 시설물은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입체적이고 조명기능이 있는 것을 권장한다.
- 내부에는 거울을 충분히 배치하여 인지성을 높인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접목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밝은 분위기의 내부

간결한 디자인으로 청결한 이미지 부여

- ‘국가어항 기능편익시설 표준설계’에서 제시된 화장실을 기본타입으로 하되, 어항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기본타입을 응용하거나 간결한 형태 및 색채로 계획한다.
- 임시 또는 가설 형태를 지양하고 관리동, 여객터미널 등의 공공건축물과 통합 설치한다.
- 화장실 입구 또는 주변부에 녹지화단 설치를 권장한다.
- 화장실은 지붕, 입면 등에 과도한 규모의 장식적 요소 도입을 지양한다.
- 친환경적 공법을 추구하고 천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녹지화단 설치



간결한 입면 디자인 적용



임시 형태의 화장실 설치

● 필수 ○ 권장

관광객 이용시설 * 방문자센터/인포메이션부스

선착장 인근, 어항 입구에 배치

- 주요 진입도로에서 접근 시 양호하고 주요한 어항 풍경(바다, 물양장, 주변 해안풍경 등)을 차폐하거나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와 규모를 계획한다.
- 기념품점, 전망 및 휴식공간, 화장실, 매표소, 전시실, 미디어 검색실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실내공간을 구성한다.
- 야간에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
- 보행로가 길어지는 경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식을 한다.



주요 진입도로와 연계한 위치



다양한 기능과 통합 구성



야간 시간대 적정 조도 확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이용자의 보행 동선과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무인 인포메이션 부스는 조작부가 일반 이용자와 보행약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 바닥면의 단차가 없게 설계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단, 경사면과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발광다이오드(LED)나 LCD를 이용한 정보전달과 음성 서비스 기능을 겸비한다.
- 휠체어, 유모차, 하이힐 등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포장재 및 포장방식은 지양한다.



보행 동선과 환경을 고려한 위치



단차 없이 바닥면 설계



보행약자 통행이 어려운 포장재

● 필수 ○권장

어항의 풍경과 조화로운 시설로 디자인

-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원거리에서의 인식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재나 동식물 등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하지 않는다.
- 가로시설물의 통합디자인을 추구하여 시설물의 공간 점유율을 최소화한다.
- 시설물은 최소한의 통폐합 디자인을 추구하며 주변 공간과 일체감, 조화성을 추구한다.
- 건축물에 있어 과도한 그래픽, 색채 사용, 대형 간판 등은 자제한다.
- 상업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하고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주·야간 이정표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불편함을 야기하는 조형물, 지나친 상징성을 지니거나 풍경을 가리는 조형물은 지양한다.
- 옥상 및 건축물 주변에 설비시설의 노출을 지양한다.



단순한 구조로 디자인



최소한의 통폐합 디자인 추구



충분한 조도 확보

누구나 알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균등한 기회와 편의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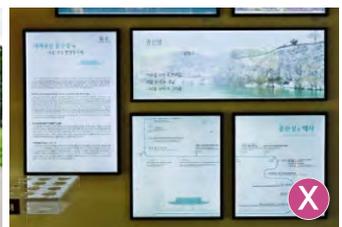
- 인포메이션 부스에 부여되는 정보(권역 표시, 고유 관리 코드 등)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 다국어 정보를 병기하고, 다국어 표기가 어려운 장소에는 픽토그램의 사용을 확대한다.
- 내·외부의 정보매체는 어항 내 통일감을 고려하여 일체감 있는 표기양식을 권장한다.



인포메이션 부스 정보 표시공간



일체감 있는 표기양식



다국어 정보 미표기

● 필수 ○권장

공공시각매체

안내시설물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정돈된 어항 경관 형성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형태와 크기를 단순화, 통합화, 규격화 하여 설계한다.
-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 지주대를 설치할 시 미관과 안전성을 고려해 체결 부위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선착장 인근 및 어항의 입구에서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풍경을 압도하거나 사람 키를 넘는 과도한 규모를 지양한다.
- 고채도 원색의 사용은 긴급, 위급 등 강조할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부위는 둥글게 처리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고려한다.
- 적용되는 재료는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내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누구나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선착장 인근에 설치

표기 내용과 배경은 주목성, 시인성, 가독성을 고려

- 목적별, 장소별 정보매체의 체계적인 구성과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 불필요한 시각적 요소는 제거하고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단순화하여 가독성과 가시성을 높인다.
- 정보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지면의 크기에 비례해 서체의 크기를 최적화시키고, 여백을 주어 인지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디자인



필요한 정보 위주의 안내판



여백을 통한 인지성 강화

● 필수 ○ 권장

옥외시설물

청정바다의 이미지에 조화되도록 단정하고 간결한 디자인 지향

- 옥외광고물은 가급적 작게 제작하여 주변 환경이나 건축물을 압도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색채, 재질, 크기, 형태를 고려한다.
- 1업소 1간판을 기본으로 하되, 업소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연립형 간판을 활용한다.
- 글씨는 여백을 충분히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미관을 증진한다.
- 건축물을 배경으로 활용하여 입체형 문자를 적용한다.
- 업소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업소만의 서체, 조형이미지, 아이콘, 색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크기의 조형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식물 부착을 지양한다.
- 창문에 부착하는 시트지 광고 및 음식물, 동식물, 인물의 사진을 인쇄한 간판은 지양한다.
- 현란하게 움직이는 네온사인, 과도한 색의 조명시설은 지양한다.



건축물과 조화로운 간판



과도한 개수의 간판 사용



과도한 조명 사용

● 필수 ○ 권장

해수욕장

정의

-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의미한다.

표본 대상지 선정

- 부산광역시에는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등 총 7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총 7개의 해수욕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공공공간

1. 해안 조망을 훼손하는 일부 주차공간

- 송정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은 산책로 전면부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혼재된 인상의 보행가로를 형성한다.
- 해수욕장 주요 진입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준다.
- 주차공간 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중복되어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한 공간을 구축한다.



공공시설물

1. 배수시설이 미흡한 편의시설물

- 임시 샤워부스, 발 씻는 공간 등 샤워시설 내 배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다.
-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이나 일부 임시 샤워시설 내 미끄럼방지 재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모래털이 시설물이 부재하여 모래로 인한 배수시설 막힘 문제와 샤워시설을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 발 씻는 공간 내 배수시설이 없어 이용하기에 지저분하며, 이용객이 직접 물을 가지고 와야하는 임시 샤워시설 등 사용상 편의성이 저하된다.



2. 해안과 조화롭지 않은 조형물

- 해수욕장 특색을 강화하기 위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 가이드라인 부재로 일관성 없는 조형물이 다수 조성되어 있다.
- 조형물이 방문객의 주요 보행 동선 내 위치하여 보행을 방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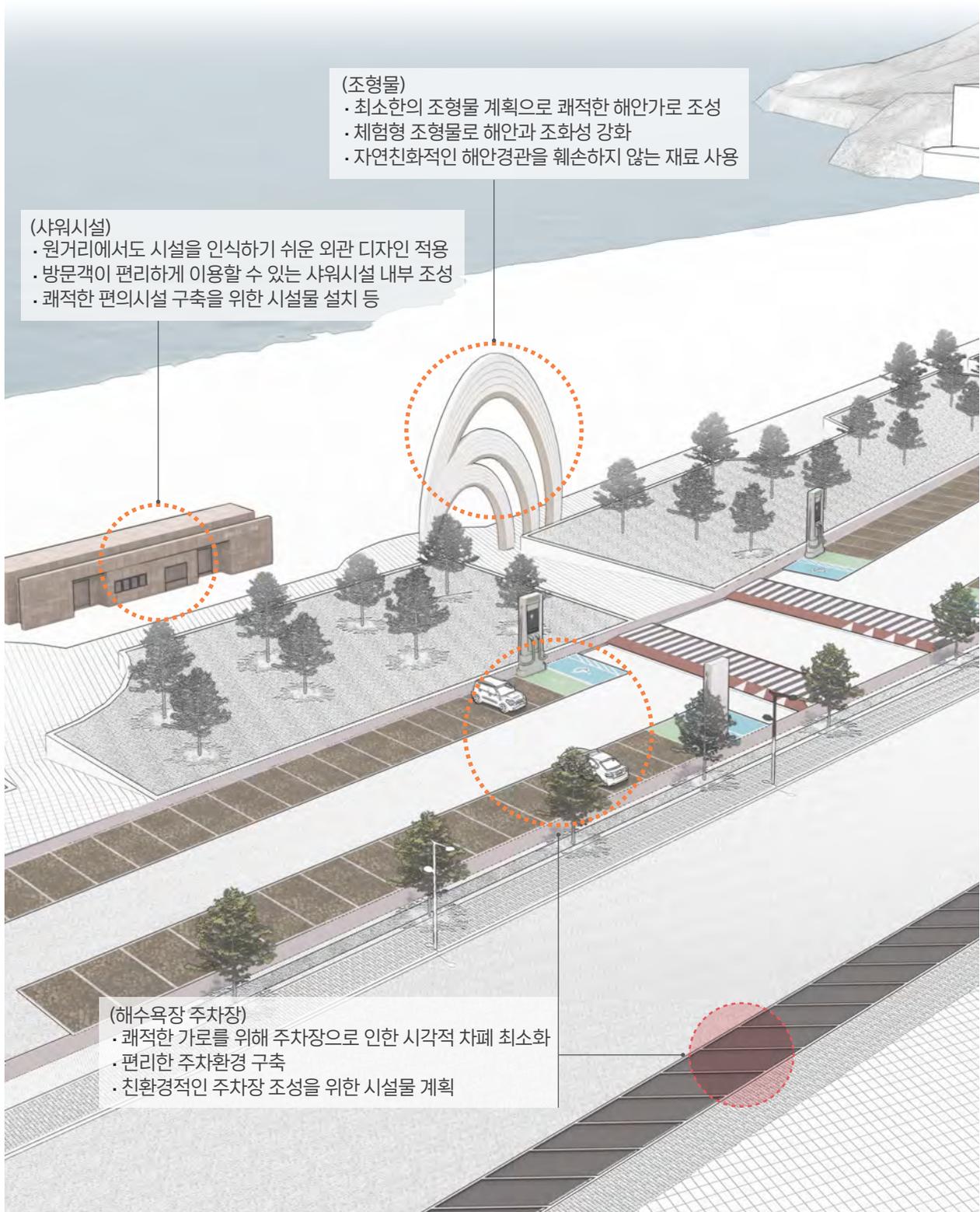


기본방향

- 해안 조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방적인 공공공간을 구축한다.
-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조성한다.
- 주요 보행 동선과 시설물 간의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가로를 형성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여 공간 특색을 강화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가이드라인 분류	대분류	소분류	페이지번호
공통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도로 - 보도	p.28
		기타공간 - 옥외주차장	p.69
특화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해수욕장 주차장	p.61
		샤워시설	p.63
	공공시설물	조형물	p.66



공공공간

해수욕장 주차장

쾌적한 가로를 위해 주차장으로 인한 시각적 차폐 최소화

- 해안 조망성을 고려하여 수변부 및 해안 산책로와 접한 부분에 주차장 배치를 금지한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해수욕장별 방문객 수요 추정으로 적정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 여름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학교,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
- 노상주차장 외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주차장 시·종점부에 파크렛(parklet)을 조성한다.



수변부와 이격하여 배치



적정 규모 주차공간 확보



인근 공터를 활용한 주차장

편리한 주차환경 구축

- 해수욕장 주 진입부와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한 칸에 폭 3.5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설치하며 측면에 폭 1.2m 이상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노면에 표시한다.
- 주차장에서 해수욕장 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유효폭 1.2m 이상으로 단차가 없도록 계획한다.(불가피한 경우 기울기 1/18 이하의 경사로를 계단과 함께 반드시 설치한다.)
-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영역의 패턴을 구분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
- 장애물의 간섭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며 보행안전통로 좌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주 진입도로 및 입구에 주차장 위치 안내도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정보를 제공한다.
- 안전하고 주차하기 편리한 주차구역을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시 사선주차장으로 조성한다.
- 시설 인지성 강화를 위해 표지판, 티켓 부스 등 관련 시설은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1면 이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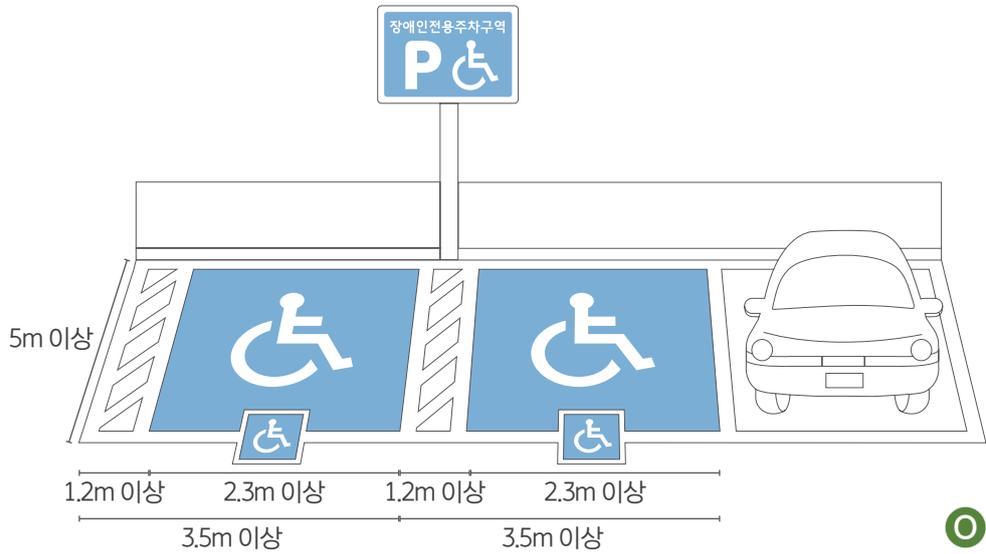


패턴으로 보행영역 인지성 강화



복잡한 디자인의 안내표지

● 필수 ○권장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크기 및 배치

친환경적인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계획

- 해안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안내표지에 고채도 및 고명도 색상 사용을 지양한다.
-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잔디, 수관폭이 넓은 수종 등의 녹지와 캐노피 시설을 조성한다.
- 친환경 잔디블록을 설치할 시 장애인 주차구역 및 이동 동선에는 최소화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 주차장 지붕 설치 시 태양광 패널 지붕을 설치한다.
- 접근성 높은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장 입구에서 가까운 공간 내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하여 일반차와 전기차의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전기차 충전 시 주차면적을 장시간 점용하여야 하므로 일반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 내 전기차 충전소를 조성한다.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빗물을 막을 수 있는 지붕 및 캐노피 형태로 구축한다.
-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전기차 충전소 이용객을 위해 충전 단자는 하단부에 설치한다.



저채도 및 중명도 색상 사용



고채도 색상 사용



휠체어 이동 동선 내 잔디블록 적용

● 필수 ○ 권장

야간 시간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밝은 분위기의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 주차장 도로 교차부 및 횡단보도 인근에 반사경, 과속방지턱을 배치하여 안전한 주차장을 조성한다.
- 보행통로에 조명 및 CCTV를 통합 설치하여 야간 안전성을 증진한다.
- 바닥으로부터 85cm 떨어진 지점이 평균 70lux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을 계획한다.
- 가로등 설치 시 비상벨을 함께 구축하여 범죄 및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안내판은 야간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발광형 또는 조명 내장형으로 설치한다. (불가피 할 경우 안내판 주변 야간 조도를 확보하여 운전자가 안내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조명 설치로 야간조도 확보



조명 통합형 CCTV 구축



조명 내장형 안내판 설치

샤워시설

원거리에서도 시설을 인식하기 쉬운 외관 디자인 적용

-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해수욕장과 샤워시설 사이의 이동거리는 3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샤워시설 조성 시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외부에서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샤워 시설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외부 시야 차단을 위해 가림벽, 문, 창문을 통합 계획한다.



해수욕장과 연접한 샤워시설



이용객 간 동선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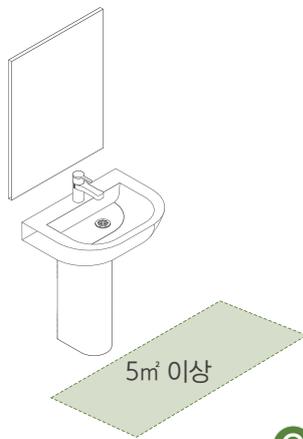


샤워시설과 분리된 탈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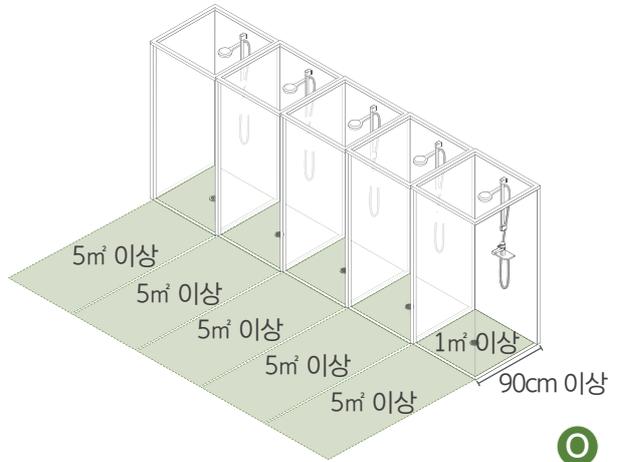
● 필수 ○권장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 내부 조성

- 세면대, 샤워기 설치 시 이용객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 세면대와 샤워기 앞에는 5㎡ 이상의 움직임 공간이 있어야 하며 움직임 공간과 별도로 통로공간을 확보한다.
- 목욕시설 내 샤워기 1대당 최소 면적은 1㎡ 정도를 확보하고 한 쪽 면의 길이는 90cm 이상으로 계획한다.
- 탈의시설을 샤워시설 내부에 계획하며 불가피할 경우 같은 층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 탈의시설의 문은 안쪽에서 잠글 수 있도록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 개별 탈의시설은 1인당 0.5㎡를 확보한다.
- 비누, 샴푸 등을 샤워시설 입구에 구비하고 비누선반, 수건걸이 등을 비치한다.
- 실내조명은 60 ~ 150lux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가급적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 쾌적한 샤워시설 구축을 위해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세면대 앞 공간 확보



샤워기 면적 및 앞 공간 확보



세면대와 샤워시설 동선 분리



개별적으로 조성된 탈의시설



적정조도가 확보되지 않는 샤워실

● 필수 ○ 권장

하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시설 계획

- 하수는 가장 짧은 경로로 배수되도록 하수시설을 계획한다.
- 쾌적한 샤워시설 조성을 위해 하수는 이용객이 세면대나 샤워기를 사용하는 공간을 통해 흐르지 않도록 한다.
- 물 고임으로 인한 시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시설은 경사 0.2% 이하로 계획한다.



샤워기 공간을 통하지 않는 하수



경사 0.2% 이하로 계획



샤워공간과 먼 하수시설

쾌적한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물 설치

- 모래로 인한 샤워시설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구 주변에 철망, 모래털이기, 발매트 등 신발을 털거나 닦는 시설을 배치한다.
- 바닥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적용한다.
- 편리한 유지관리를 위해 바닥과 벽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한다.
- 바닥 하수구에 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 세면대와 샤워기에 냉·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냉·온수 공급시설 설치



모래털이기 미배치



악취 차단장치 미설치

● 필수 ○ 권장

공공시설물

조형물

최소한의 조형물 계획으로 쾌적한 해안가로 조성

- 설치 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조형물은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시설물로 인한 보행 방해로 최소화하기 위해 주 보행동선 내에는 조형물 설치를 금지한다.
- 해안경관과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간에만 설치한다.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 설치



보행동선 내 조형물 설치



보행동선 내 조형물 설치

체험형 조형물로 해안과 조화성 강화

- 특정 이미지 형상화를 지양하고 기초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간결한 형태를 적용한다.
- 바라만 보고 접근을 막는 조형물 형태를 지양하며, 경관의 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조형물을 계획한다.
- 퍼걸러 역할을 하는 휴게형 공공조형물을 조성하여 조형물의 활용성을 증진한다.
- 관리기관 및 단체명의 표기나 홍보성, 캠페인성 문구 사용을 지양한다.



체험형 조형물 설치



체험형 조형물 설치



자치구 홍보성 문구 사용

● 필수 ○ 권장

자연친화적인 해안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재료 사용

- 눈부심, 반사 등의 소지가 있는 고광택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경관조명을 계획할 경우 현란한 움직임이나 원색을 사용하는 조명계획을 지양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혼란을 방지한다.
- 직접 투광을 통한 조명 계획 시 대상물에 정확히 조사될 수 있는 배광의 등기구를 적용하여 장식품 밖으로의 누설광 발생을 최소화한다.
- 장기간에 걸친 해수 침투에 의한 재료 손상, 계절별 온도 변화에 의한 구조물 파손 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택한다.



해수에 변색되는 재료 활용



고광택 재료 사용



고광택 재료 사용

● 필수 ○ 권장

수변공원

정의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의미한다.

표본 대상지 선정 1차 선정

- 2023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현황 중 조성완료된 수변공원을 현황조사에 반영한다.
- 가리새수변공원, 사라수변공원, 다대포해변공원,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등 총 5개의 수변공원을 포함하였다.

2차 선정

- 1차 선정에서 미도출된 수변공원 중 포털사이트에서 수변공원 검색 후 대상지를 추출한다.
- 민락수변공원, 삼익비치 수변공원, 용호별빛공원, 청학수변공원, 남항대교 수변공원 등 5개 추가로 포함하였다.

3차 선정

- 해양도시 특화 가이드라인과 맞는 현황조사를 위해 해안가에 위치한 민락수변공원, 청사포공원, 삼익비치 수변공원, 용호별빛공원, 이기대공원, 남항대교 수변공원, 다대포해변공원 등 총 8개의 수변공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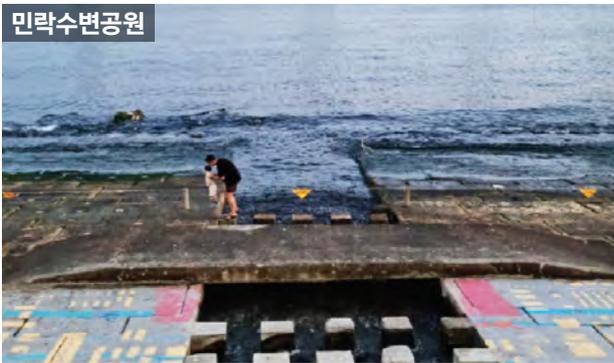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공공공간

1. 관리가 부족한 해안 경계부

- 바닷물 범람이 여러 차례 발생한 수변공원 경계부가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지저분한 인상을 조성한다.
- 일부 해안 경계부에는 휩쓸려 온 쓰레기 및 부유물이 토사에 그대로 놓여 있어 쾌적하지 않은 공간을 형성한다.
- 잦은 해수 범람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변공원이 변색되어 관리가 부족한 공공공간이 조성된다.



민락수변공원



민락수변공원



청학수변공원



청학수변공원



용호별빛공원



남항대교 수변공원

2. 야간조도 확보가 미흡한 조망공간

-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공간 내 공원등 등 조명 가로시설물이 부족하여 야간조도가 확보되지 않는다.
- 용호별빛공원에는 낮은 조도의 고채도 조명을 조성하여 해안경관과 부조화를 야기한다.
- 청학수변공원은 부두와 접하고 있어 어선 불빛에 의해 일부 밝은 공간이 있으나, 대부분의 공간에서 야간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야간 시간대 이용성이 저하된다.



공공시설물

1. 해안 범람을 고려한 시설물 조성 필요

- 대부분의 수변공원은 여름철 범람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으로 바닷물에 의해 가로시설물, 바닥 등이 훼손되어 쾌적하지 않은 휴식공간을 연출한다.
- 청학수변공원 내 펜스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녹물로 방치된 인상을 조성한다.
- 이기대공원 등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수변공원에는 나무 재질로 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수 범람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이 다수 발생한다.



민락수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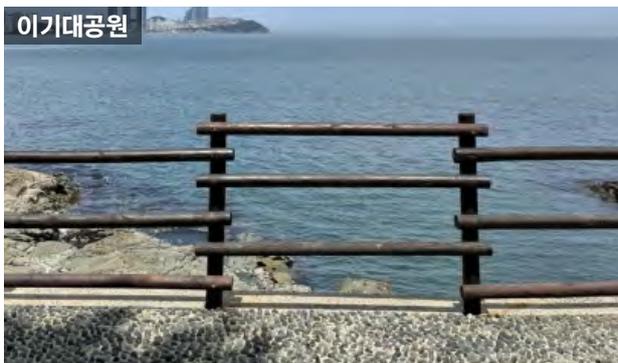
청학수변공원



남항대교 수변공원



용호별빛공원



이기대공원



다대포해변공원

기본방향

- 해수 범람으로부터 안전하고 정돈된 해안 경계부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을 구축한다.
- 자연친화적인 해안 경계부 연출을 위해 해안과의 조화성을 고려한다.
- 야간 명소로의 품격 증진을 위해 밝은 분위기의 공공공간을 조성한다.
-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창출을 위해 유지관리가 편리한 재질을 적용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가이드라인 분류	대분류	소분류	페이지번호
공통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도로 - 보도	p.28
		공원 - 수변공원	p.66
특화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경계공간	p.74
	공공시설물	안전시설	p.77



공공공간

경계공간

부산의 상징성이 느껴지는 수변공원 진입부 구축

- 진입관문은 기능 중심의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멀리서도 누구나 쉽게 수변공원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진입관문은 녹지공간에 설치하여 보행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조명이 포함된 지주형 진입관문을 조성하여 야간 시간대 밝은 분위기의 수변공원을 연출하는 데에 기여한다.
- 목재, 석재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며 해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부 처리를 필수적으로 계획한다.



조명형 지주 진입관문 조성



방부 처리된 목재를 사용한 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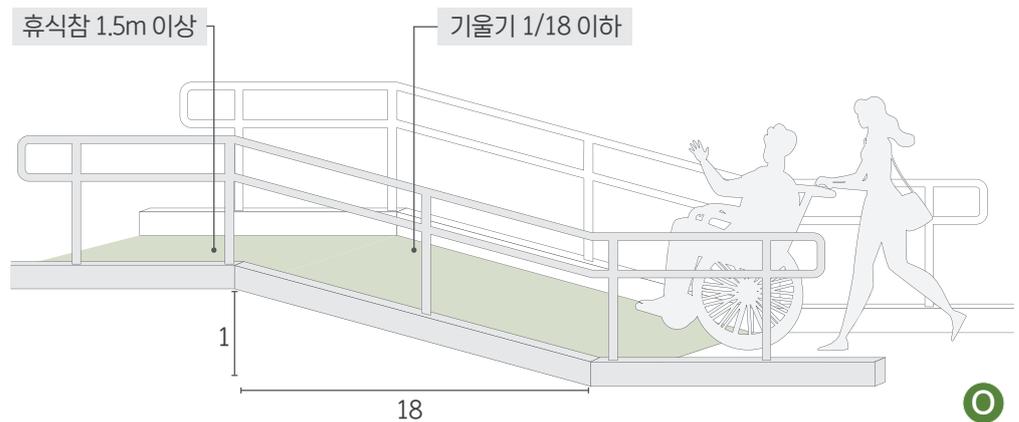


장식적 요소를 과도하게 사용

도시 품격 증진을 위해 모두에게 열린 수변공원 조성

- 수변공원 외부 보행로와 단차없이 주 출입구를 연결한다.(불가피할 경우 경사로, 낮춤턱 등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다.)
- 경사로는 기울기 1/18 이하로 하며 경사로 길이 30m 이내마다 1.5m 이상의 수평 참을 계획한다.
- 대중교통 등 보행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 최단거리로 수변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주요 출입구를 조성한다.
- 주 출입구 진입관문 등 통행이 많은 구간 내 음성지원이 가능한 통합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수변공원 출입을 유도한다.
- 발걸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방적인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 볼라드 및 화분 등 보행 장애요소는 제거한다. (단, 차량 및 오토바이 출입이 우려되는 공간에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보행안전시설물 - 볼라드」를 준수한 볼라드를 설치한다.)
-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PM) 등의 통행이 금지된 주 출입구 구간에는 관련 안내사인을 부착하여 보행에 위험이 되는 이동수단이 접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필수 ○권장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通行할 수 있는 경사로 구축



음성안내표지판 별도 부착



이동장치通行 금지하는 안내사인



과도하게 낮은 볼라드

활력있는 공간 조성

- 수변으로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위해 계단 등 단면 구조의 변화를 도모한다.
- 곡선, 돌출 등 경계부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활력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 평상시 물과 접하는 수변공원은 친수·생태형 공간으로 강화한다.



단면 구조의 변화 도모



경계부의 다양성 추구



친수형 공간으로 강화

● 필수 ○권장

해안과 조화로운 보행데크 조성

- 수변공원 보행로에서 보행데크로 유기적이고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길을 구성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
- 데크 공간은 다양한 식재를 활용하여 그늘공간을 형성하고 휴게공간의 기능을 향상한다.
- 수평참 공간은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등 누구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벤치 위치 및 펜스 형태를 고려한다.
- 공원에 사용되는 데크는 자연 수목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한다.



보행로와 최단거리로 연결



식재를 활용하여 그늘공간 조성



수평참 공간 휴게공간으로 활용

유지관리가 편리한 재료 사용

- 잦은 침수가 일어나는 공간은 유실 피해에 잘 견디며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해풍에 의한 부식 등을 고려하여 내식성 입면 재료를 사용한다.
-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경계부를 위해 친환경적 공법을 추구하고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청소가 용이한 재료 적용



내식성 입면 재료 사용



자연재료 사용

● 필수 ○ 권장

공공시설물

안전시설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디자인 적용

-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부피감을 최소화하고, 면보다 선적인 형태를 지향한다.
- 수변공간 내에는 정해진 장소로만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울타리나 조경을 설치한다.
- 야간에도 수변공간 내 구조를 인식하도록 유도등, 보행등을 설치한다.
- 계단의 경우 적절한 야간 조도를 확보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한다.
- 수상 사고를 고려한 구명환,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배치한다.
-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공간에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시설물 기초부는 지면 위로 노출되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해안변 울타리 설치



보행등 설치



계단 내 적절한 야간 조도 확보

내구성이 강한 재료 적용

- 해풍, 해수 등으로 인한 부식이 쉬운 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 눈부심, 반사 등의 소지가 있는 고풍택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저광택 재료 적용



해수에 부식이 쉬운 재료 지양



부식되는 재료 사용

● 필수 ○ 권장

보행자가 안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보 전달

- 안내판 설치 시 3-5가지 저채도 색상을 적용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조성한다.
- 안내판 등 안내시설은 기본색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통일성 있는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 픽토그램 사용 시 안내정보를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도 대비를 활용한다.
- 금지·안전표지의 시각매체는 표준안전색채(금지-빨간색, 주의-노란색)를 적용한다.
- 단층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가로 폭 5m, 높이 0.6m로 최소화하여 해안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식재, 가로 시설물 등에 의해 시각적 차폐가 발생하지 않고 개방된 보행로 녹지면에 밀착하여 설치한다.
- 현수막의 서체는 한 가지로 통일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한다.
- 현수막 바탕색은 지정색(흰색, 연한 아이보리)을 사용하여 현수막 내용의 시인성을 강화한다.



시각적으로 편안한 안내판



단층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정보 시인성이 저하되는 바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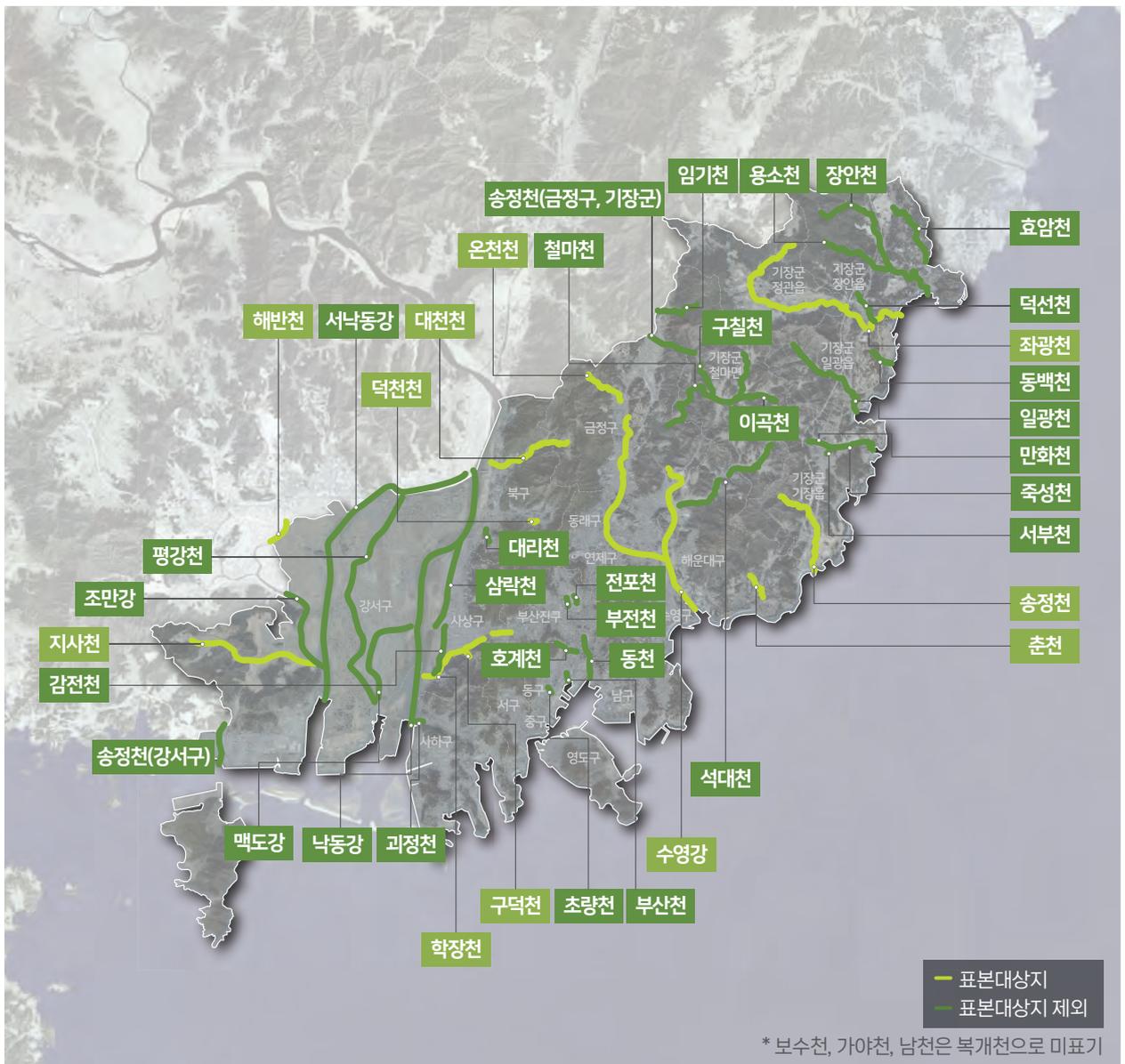
하천

정의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 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지칭한다.

표본 대상지 선정

- 부산광역시 내 위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중 별도의 데크, 산책로가 조성된 하천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 온천천, 해반천, 대천천, 덕천천, 좌광천, 송정천, 춘천, 지사천, 학장천, 구덕천, 수영강 등 총 11개의 하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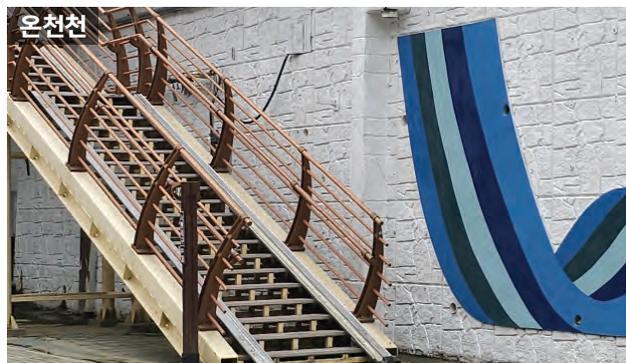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공공공간

1.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진입부

- 산책로 진입 경로가 계단으로 구성되어 휠체어 이용자, 어르신, 어린이 등 보행약자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 일부 하천의 계단 내 경사로 부재로 자전거 이용자 통행이 불가하다.
- 계단 디딤판을 인식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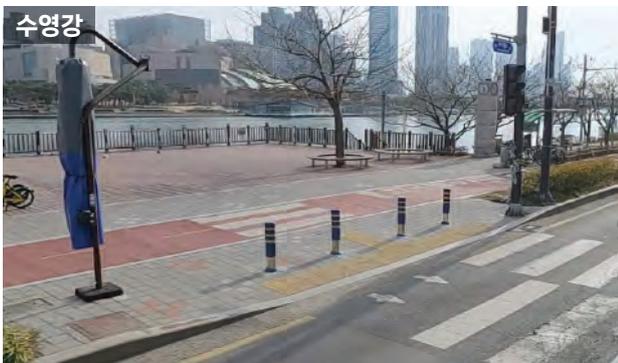
2.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다리

- 하천의 양측을 연결하는 통행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통행량에 비해 유효 폭이 좁은 공간 및 안전시설물 부재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저하 및 불편을 야기한다.
- 미끄럼 사고를 유발하는 돌다리가 다수 조성되어 위험한 보행공간을 형성한다.
- 보행자 경각심 제공을 위한 안내사인물 부재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3. 자전거와 보행자 공간 분리 미흡

-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 비슷한 색감을 사용하여 시인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 자전거도로가 보도를 통과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부딪힘 사고를 유발한다.



공공시설물

1. 범람 시 대피 및 진입통제 시설물 부족

- 집중호우를 대비한 진입통제 시설물이 부재하여 수난사고가 우려된다.
- 온천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 주요 출입로 내 범람을 대비한 안전시설물이 부족하다.
- CCTV 등 대피 유도시설물과 진입통제 시설물 부재로 재난 발생 시 빠른 대피가 불가능하다.
- 범람을 고려하여 출입통제 정보사인물을 부착하였으나 측면에 대형 광고물이 설치되어 인지성이 저하된다.



기본방향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위해 보행약자를 고려한 진입부 형태로 조성한다.
-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객이 교행 가능한 다리 및 징검다리를 형성한다.
- 안전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구축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가이드라인 분류	대분류	소분류	페이지번호
공통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도로 - 보도	p.28
		도로 - 자전거도로	p.33
특화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진입공간	p.86
		보도	p.88
	공공시설물	재난안전시설물	p.90



공공공간

진입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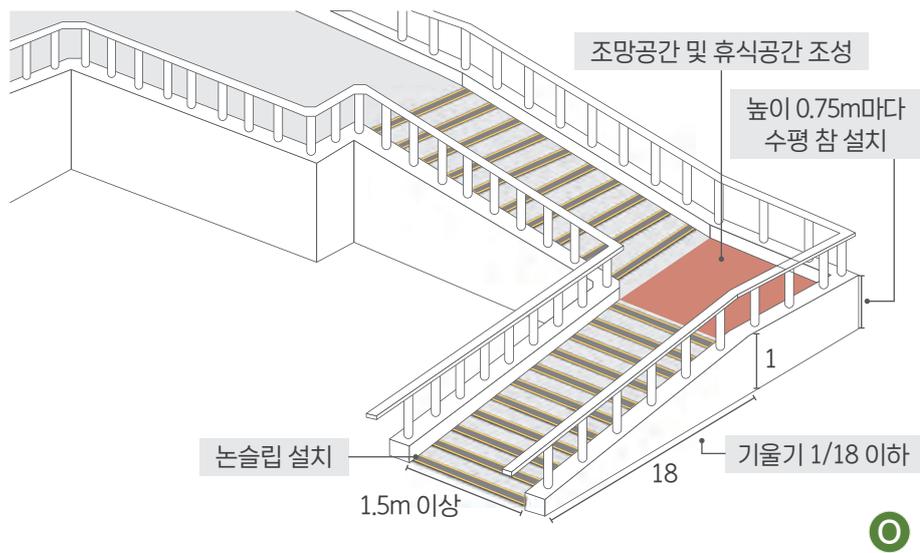
단조로운 하천 이미지 극복

- 비탈면이 3m 이상일 경우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계절 식재를 조합하여 조성한다.
- 진입 계단, 경사로와 연결한 비탈면에는 입체적 화단 조성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계단과 함께 보행약자가 이용 가능한 진입부를 조성하여 모두에게 열린공간 연출

- 계단 설치 시 보행약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경사로를 부착하여 설치한다.
- 계단과 경사로는 기울기 1/18이하, 유효 폭은 1.5m 이상 확보하여 설치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는 수평 참을 설치한다.
- 경사로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논슬립을 설치한다.
- 경사로 수평 참 계획 시 하천 조망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볼거리가 다채로운 하천을 연출한다.



휠체어 등 보행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구축

● 필수 ○ 권장

진입차단 시설물 설치로 재난재해 대피방안 마련

-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모든 하천 진입부에는 진입차단 시설물을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 하천 범람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진입 차단 시설물의 개방 버튼은 하천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른쪽 방향에 설치한다.
- 비상상황 시 진입차단 시설물 개방 버튼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버튼이 위치한 2m 이내로 안내 사인물을 배치한다.
- 하천 횡단교, 돌다리 등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은 안전사고 주의안내사인물을 설치하여 추락 및 유실사고를 방지한다.



● 필수 ○ 권장

보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속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보행 산책로를 확보한다.
- 보행로는 필수적으로 최소 1.5m 이상 확보하고, 1.8m 이상 조성한다.
- 산책로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여 보행이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계획한다.
- 주요 산책로 및 보행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맨홀 등 돌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보행로는 범죄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풀 또는 하천으로부터 최소한 3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한다.
-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이동 장치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에는 통행금지 안내 사인을 표시한다.



예측 가능한 선형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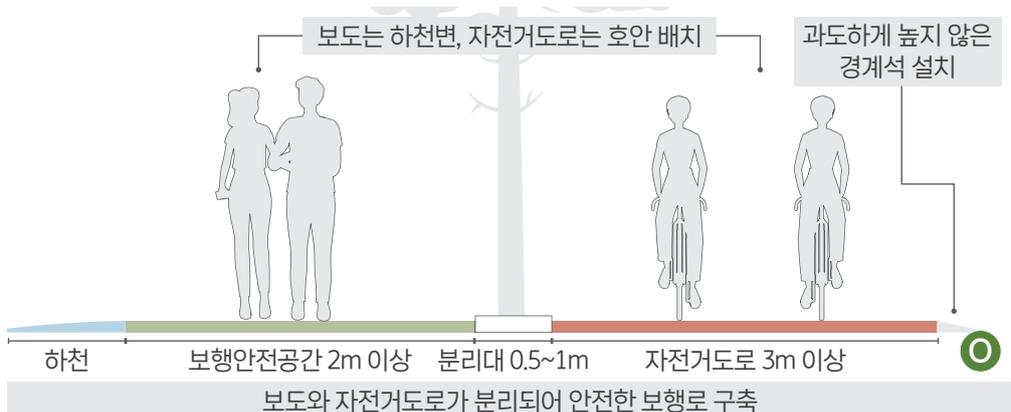
누구나 통행하기 어려운 산책로



수풀로 인해 보행자 시야 차폐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위치 및 폭을 준수하여 쾌적한 하천 산책로 조성

- 원활한 자전거 교행이 가능하도록 자전거도로 폭은 3m 이상 확보하며,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 분리공간은 0.5~1m를 확보한다.
- 하천으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간 속도가 느린 보도는 하천변에, 속도가 빠른 자전거도로는 호안 쪽에 배치한다.
- 과도하게 높지 않은 자전거도로 경계석을 설치하여 자전거도로와 진출입부 간 단차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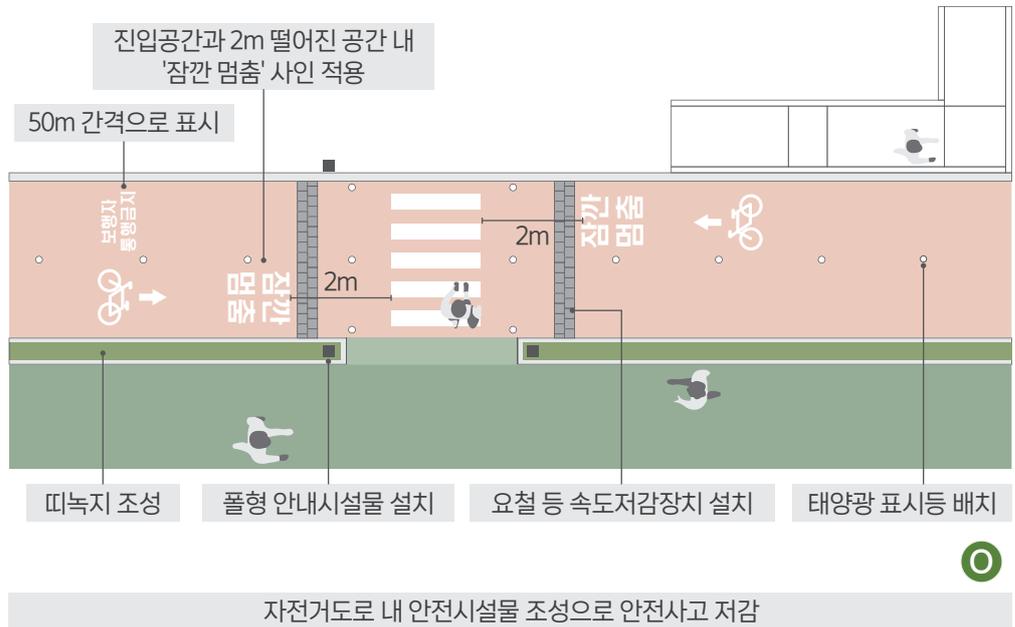


● 필수 ○ 권장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안전한 보행로 구축

안전시설을 설치로 자전거도로와 보도 인지성 강화

- 자전거도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부에는 횡단보도 도달 전에 교통 상황을 미리 인지하여 감속을 유도할 수 있는 풀형 안내시설물을 자전거도로 측면부에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와 진입공간이 접하는 공간과 2m 떨어진 자전거도로에 '잠깐 멈춤'을 적용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야간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직면 최소 조도기준 1lux, 수평면 최소 조도기준 5 lux이상 확보한다. (불가피한 경우, 태양광 자전거도로 표시등 설치로 자전거도로 방향을 안내한다.)
-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라이더 간 부딪힘 사고를 예방한다.
- 자전거 속도 저감을 위해 요철 등의 속도저감장치를 보도와 자전거도로 교차부에 설치한다.
- 보행자가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도록 '보행자 통행금지' 사인을 50m 간격으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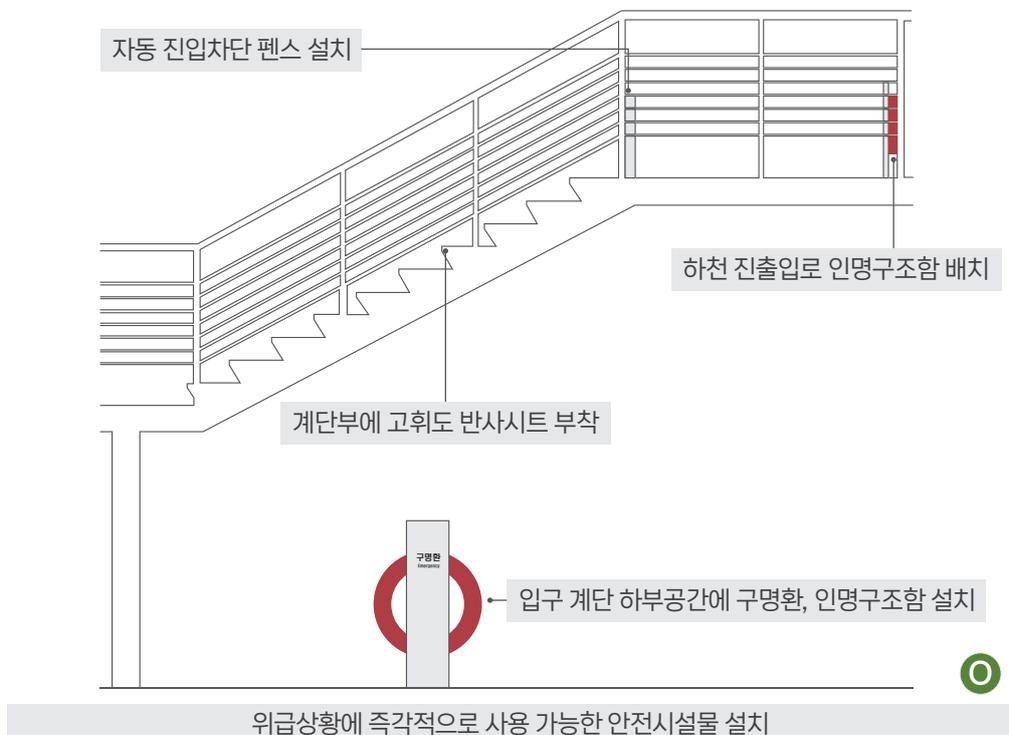
● 필수 ○ 권장

공공시설물

재난안전시설물

재난 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위치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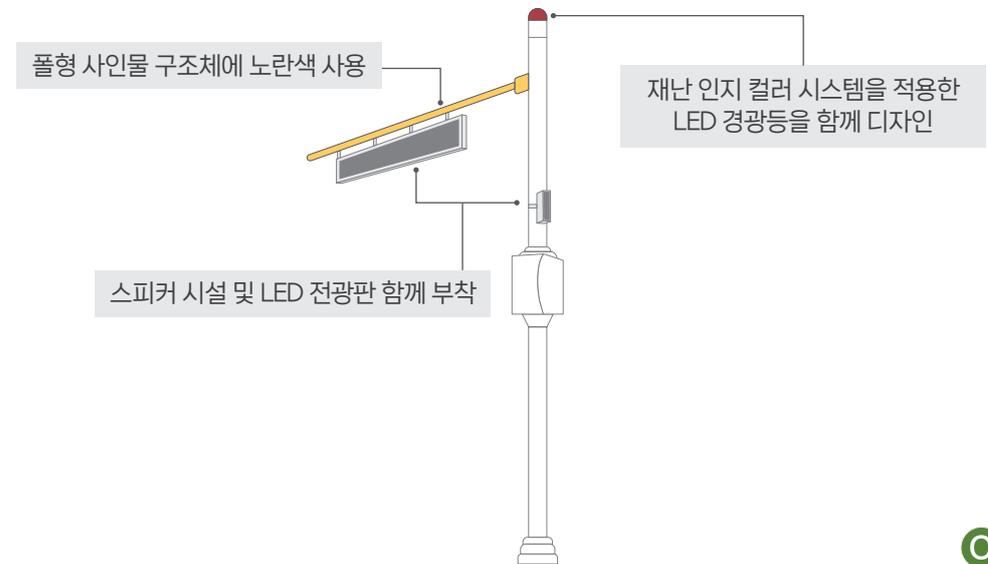
- 하천으로 진입하는 공간에 자동 진입차단 펜스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자동 진입차단 펜스 설치가 불가능한 좁은 진입부에는 하천 출입 통제 현수막을 설치하며 출입 통제사인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일관성을 부여한다.
- 하천 출입 통제 펜스 및 현수막 설치 시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과 안내 문구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보다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재난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해 하천 입구부 계단 하부공간에 구명환, 인명구조함을 설치한다.
- 범람으로 인한 인명사고 시 2차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에서 하천 진출입로에 인명구조함을 배치한다.
- 재난 시 빠른 대피유도를 위해 진출입로 측면 및 계단부에 고휘도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야간에 멀리서도 출입구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 진출입로 계단 간 간격이 500m 이상일 경우 산책로 중간에 가독성이 높은 컬러디자인이 적용된 비상 사다리 등과 같은 대피유도시설을 구축한다.



● 필수 ○ 권장

신속한 비상상황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일된 디자인 적용

- 재난안전시설물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과 컬러를 적용한다.
- 장식적 형태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구조로 설계한다.
- 원거리에서도 식별하기 쉽도록 풀형 사인물 구조체에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을 사용한다.
- 구명환은 위급 상황 시 빠른 사용이 가능하도록 걸이 형태로 디자인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보관함으로 디자인한다.
- 즉각적 상황 파악 유도를 위해 풀형 재난안전사인물에는 스피커 시설과 LED 경광등을 함께 디자인한다.
- 풀형 사인물과 통합 디자인된 경광등에 재난 인지 컬러 시스템을 적용하여 하천 진입 전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예시 : 평상시 경광등흰색, 하천 수위가 높아질 때 경광등 색이 빨간색으로 변경)
- 풀형 사인물에는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LED 전광판을 부착한다.



비상상황을 신속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시설물 디자인 적용

● 필수 ○권장

보행친화도시
가이드라인

PART.2

갈맷길 개요	94
갈맷길(수변형)	95
갈맷길(산지형)	103
갈맷길(도심형)	112

보행친화도시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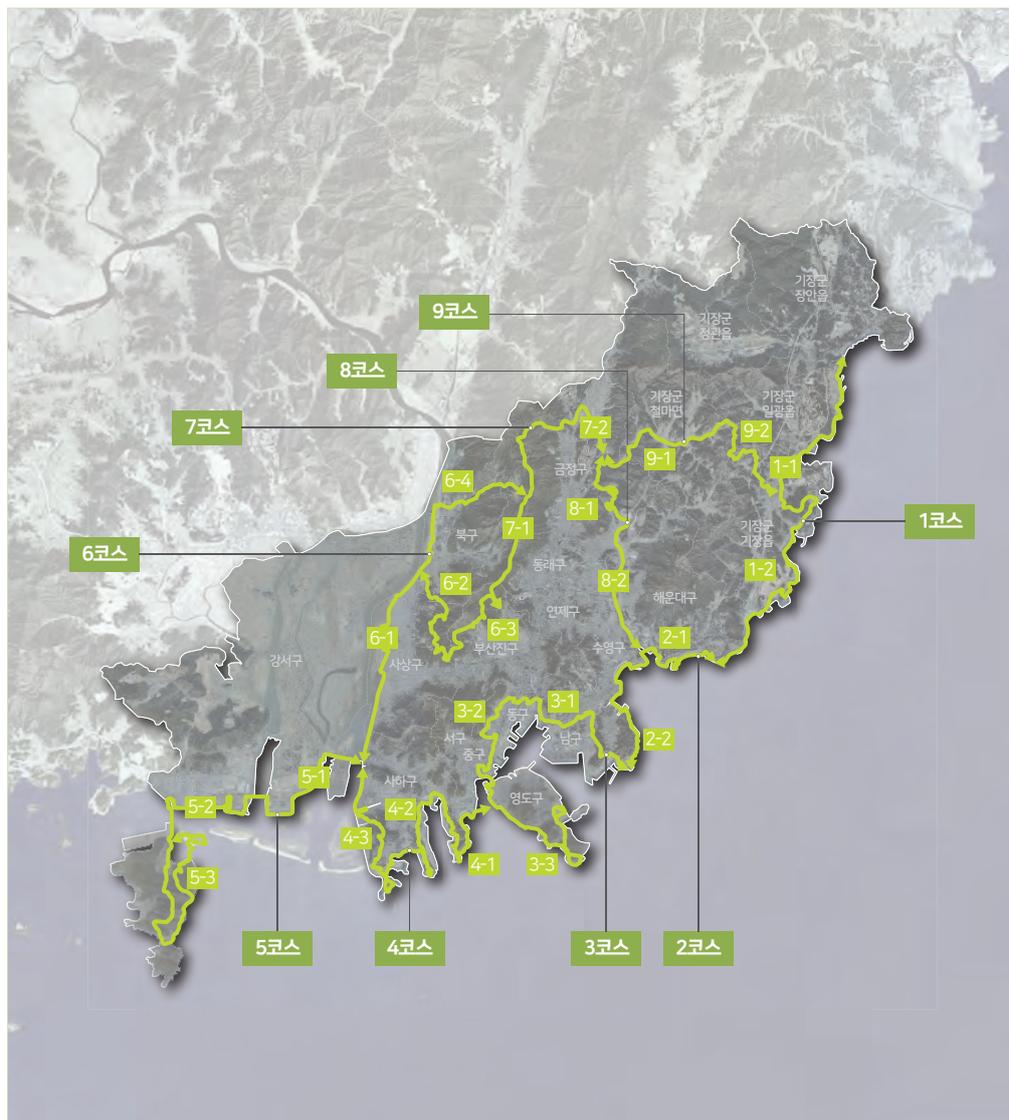
갈맷길 개요

정의

- 2009년부터 부산의 산과 강, 해안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부산의 걷기 좋은 탐방로이자 그린 웨이를 의미하는 길로 슬로우 라이프 실현 및 생태 도시로 나아가는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표본대상지 선정

- 부산 지형에 맞게 해안길, 숲길, 강변길, 도심길로 구분하여 9개 코스로 구성되어 사포지향(산, 바다, 강, 온천) 부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수변형, 산지형, 도심형 갈맷길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둘레길과 조화되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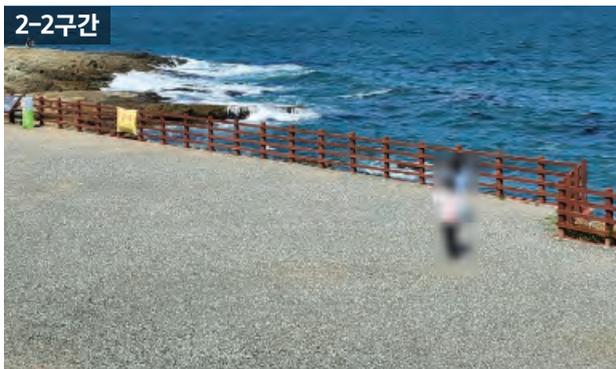
갈매길(수변형)

현황 및 문제점

공공공간

1.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망공간

- 가로수와 시설물이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점유하여 교행이 불가능하다.
- 오픈스페이스에 휴식시설물과 야간조명이 부족하여 이용객 편의성이 저하된다.
- 전망공간과 설치된 시설의 안전성 및 마감 완성도 부족으로 발빠짐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대된다.
- 협소한 공간으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미흡하다.
- 전망공간 주변에 방치된 녹지, 시설물로 개방성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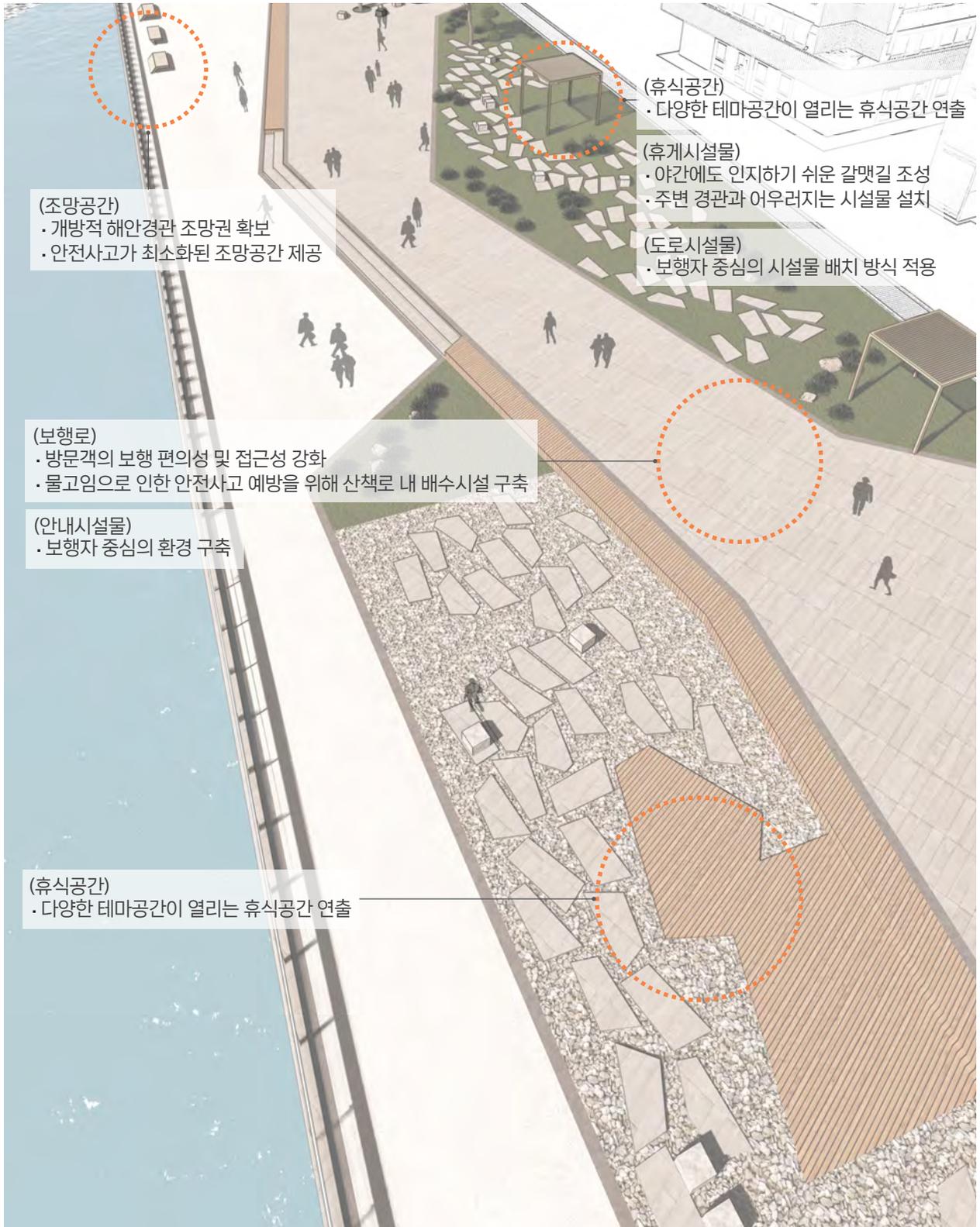


기본방향

- 위험한 가로 개선을 위해 보행자, 자전거 이용객이 통행하는 공간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 갈맷길 방문객에게 주변 경관 조망 및 휴식을 제공하는 휴게시설물을 확충한다.
- 모든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 개방적 조망이 가능하도록 전망공간 주변을 정돈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가이드라인 분류	대분류	소분류	페이지번호
공통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도로 - 보도	p.28
		도로 - 자전거도로	p.33
	공공시설물	편의시설물 - 벤치	p.172
		편의시설물 - 퍼걸러	p.178
		편의시설물 - 휴지통	p.182
		녹지·수경시설물-가로수보호덮개	p.206
		범죄 및 안전시설물 - CCTV	p.226
		범죄 및 안전시설물 - 보안등	p.229
		범죄 및 안전시설물 - 비상벨	p.232
		특화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조망공간	p.98		
보행로	p.99		
공공시설물	휴게시설물		p.101
	도로시설물		p.102
	안내시설물		p.102



(조망공간)
 · 개방적 해안경관 조망권 확보
 · 안전사고가 최소화된 조망공간 제공

(보행로)
 · 방문객의 보행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 물고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책로 내 배수시설 구축

(안내시설물)
 · 보행자 중심의 환경 구축

(휴식공간)
 · 다양한 테마공간이 열리는 휴식공간 연출

(휴식공간)
 · 다양한 테마공간이 열리는 휴식공간 연출

(휴게시설물)
 · 야간에도 인지하기 쉬운 갈매길 조성
 ·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시설물 설치

(도로시설물)
 ·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배치 방식 적용

공공공간

휴식공간

다양한 테마공간이 열리는 휴식공간 연출

- 갈맷길 방문객의 재방문 유도를 위해 코스별, 구간별로 휴식공간, 수공간, 문화공간, 이벤트 공간 등의 테마공간을 조성한다.
- 보행로와 테마공간이 연결되는 구간에는 곡선적 노면 패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행 속도 감소를 유도한다.
- 공간 가변성을 위해 보도와 테마공간의 단차를 최소화한다.
- 개방적으로 열린 공간에는 분수, 벽천 등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크고 작은 경험 공간을 연출한다.
- 가족 등 여럿이 이용하는 경우 및 혼자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양한 크기의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공소재를 최소화한 친환경 목재 등을 사용한다.
- 사계절에 걸쳐 계절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하되, 기존 식생은 보존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휴식공간 조성



노면 패턴 적용



단차 최소화

조망공간

개방적 해안경관 조망권 확보

- 조망공간은 고층건축물, 인공구조물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개방적 공간에 배치한다.
- 조망공간에 벤치 등의 휴게시설물 설치 시 해안 방향으로 개방되도록 배치한다.
- 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물과 접촉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보한다.



개방적 공간 내 배치



해안 방향으로 벤치 조성



해안 방향으로 개방된 시설물

● 필수 ○권장

안전사고가 최소화된 조망공간 제공

- 진입부 경사로, 계단과 지면이 닿는 부분은 돌출면, 요철없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 데크형 조망공간에 조성되는 경사로, 계단은 측면부는 내부 구조가 노출되지 않도록 빈틈 없이 마감한다.
- 갈맷길 보도 바닥에는 아스팔트 재질 사용을 금지하여 갈맷길과 주변 도로를 구분하고 주변 차량의 과속을 방지한다.
- 이용자가 위험을 느끼는 구역에는 조망공간 설치를 지양하며 불가피할 경우 안전시설물을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평탄하게 마감된 계단



빈틈없이 마감된 조망공간



구조가 노출된 계단

보행로

방문객의 보행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 갈맷길 안내사인물, 가로수 등의 설치를 위한 장애물 구간은 차도 쪽으로 밀착하여 배치한다.
- 산책로 진입부 및 조망공간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대중교통 정류장과 인접한 구간에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보행데크 내 수평침은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등도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벤치 및 펜스 형태를 계획한다.
- 보행데크는 판재의 길이를 최소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판재의 지지점은 최대 450mm 이내로 한다.



차도 쪽으로 밀착하여 배치



보행 공간 내 설치



주변과 연계성 부족한 진입부

● 필수 ○권장

물고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책로 내 배수시설 구축

- 해안 범람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는 배수로를 구축한다.
- 배수로 조성 시 덮개를 필수적으로 조성하며 덮개는 미끄럼 방지 표면 처리로 보행자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덮개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접근로의 바닥과 배수로 덮개의 표면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한다.
- 배수 도랑은 어린이의 발이나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주요 보행동선과 직각이 되도록 계획하고, 틈의 간격을 1cm 이하로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해안 범람지역 내 배수로 구축



1cm 이하의 틈 간격



보행동선과 같은 방향으로 조성

공공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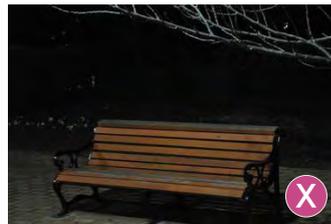
휴게시설물

야간에도 인지하기 쉬운 갈맷길 조성

- 야간의 공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벤치 등의 휴게시설물의 좌석 하부 혹은 손잡이 부분에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 보행 분위기를 위해 창백한 흰색 보다는 2,800~3,500k 정도의 색온도를 적용한다.
- 계절에 따라 자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명 연출을 계획한다.
- 나뭇잎에 빛이 가려져 생긴 그림자로 인해 어두움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휴게시설물을 배치한다.
- 벤치 조명은 벤치 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조도를 확보한다.
- 퍼걸러 조명은 퍼걸러 전체를 은은하게 연출하고 내부의 안전조도를 확보한다.



벤치 내 간접조명 설치



공간 시인성 미확보



창백한 흰색 조명 설치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설물 설치

- 전망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특정 구역에 통합 설치하여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한다.
- 벤치 등의 휴게시설물은 가로수 하부 등 자연적 그늘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 퍼걸러 등 그늘막은 갈맷길 수변 조망을 차폐하지 않도록 투시성 재료를 사용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위해 시설물 색채는 최대 3색 미만의 배색으로 표현한다.
- 벤치 등의 휴게시설물은 목재 등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유도한다.



투시성 재료 사용



친환경적 재료 사용



3색 이상의 배색 표현

● 필수 ○ 권장

도로시설물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배치 방식 적용

- 가로수 보호덮개는 보도 유효 폭 1.5m 이상이 확보된 구간에만 설치한다.
- 협소한 보행로를 고려하여 가로수 보호덮개는 도로변으로 최대한 밀착하여 배치한다.
- 맨홀 등 도로 노면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와 보도 경계부에 끝선을 맞춰 배치한다.



안내시설물

보행자 중심의 환경 구축

- 야간 방문객의 동선 인지성 강화를 위해 코스별 안내사인물에 부분 내장조명을 설치한다.
- 보행자 중심 공간 연출을 위해 노상주차금지, 시속제한 등 사인물을 설치한다.
- 주요 목적지의 명칭, 이동 소요거리 등 최소 필요요소만 표기하여 교차점에서의 시인성을 강화한다.
- 광장 등 보행자 밀집도가 높은 공간에는 방향 사인을 바닥에도 배치한다.
- 사설안내사인물은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인 녹지나 공지 옆 방향으로 설치한다.
- 주변 시설물과 통합 가능한 형태 등 유형별 안내사인물 디자인으로 환경에 따른 보행공간 확보를 유도한다.
- 종합안내도에는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위치,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개 이상의 방향을 제공하는 방향안내시설의 경우 원거리와 근거리를 각각 위에서 아래 순으로 배치한다.



● 필수 ○권장

갈맷길(산지형)

현황 및 문제점

공공공간

1. 일반 이용객이 걷기 어려운 보행로

- 계단 끝부분을 인식하기 어려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바닥에 조성된 돌이 돌출되어 걷기 어려운 산책로를 조성한다.
- 기 정비된 보행로이나 돌출된 보행로로 인해 발걸림 사고가 유발된다.
- 갈맷길로 인식하기 어려운 보행로 형태로 위험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2. 위급상황에 빠른 대처 불가능

- 이용객 수에 비해 119 구급함이 부족하다.
- 인적이 드문 공간이 존재하고, CCTV 등 범죄에 대응 가능한 안전시설물이 미흡하다.
- 일부 공간에만 국가지점번호 안내판이 조성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 시 빠른 신고 및 대처가 어렵다.



기본방향

-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보도의 돌출요소를 제거한다.
- 모든 방문객의 보행 편의성을 위해 장애요소를 최소화한다.
- 갈맷길 내 동선, 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 사인 체계를 확보한다.
- 갈맷길 동선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간 디자인을 적용한다.
- 위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확충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가이드라인 분류	대분류	소분류	페이지번호
공통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편의시설물 - 벤치	p.172
		편의시설물 - 퍼걸러	p.178
		편의시설물 - 휴지통	p.182
		범죄 및 안전시설물 - CCTV	p.226
		범죄 및 안전시설물 - 보안등	p.229
		범죄 및 안전시설물 - 비상벨	p.232
특화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보행로	p.107
		휴식공간	p.108
	공공시설물	안내시설물	p.109
		안전시설물	p.111
		가로시설물	p.111



공공공간

보행로

누구나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환경 제공

- 보도 노면에 횡단면을 단절하거나 돌출 면을 연출하는 석재 등으로 표면을 마감하지 않는다.
- 모든 방문객의 통행을 위해 보도 노면은 틈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 주 접근로에는 계단이나 급경사를 지양하며 불가피할 경우 완만한 경사로, 승강기가 있는 동선을 안내하는 사인물을 배치한다.
- 계단, 급경사가 빈번한 구간에는 방문객이 공간 여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진입부에 바닥 사인물, 지주형 사인물을 설치한다.
- 동선이 교차되는 구간에 적절한 간격으로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바닥면 석재 설치



틈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마감



계단 안내 사인물 설치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재료 사용

- 우천 시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흙바닥으로 포장된 구간에는 야자수 매트 등으로 마감한다.
- 전망공간, 진입부 계단 끝단에는 목재 데크와 대비되는 색채의 반사형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흙바닥



야자수 매트 마감



대비 색채의 반사형 재료 사용

● 필수 ○ 권장

휴식공간

범죄로부터 안전한 개방공간 조성

- 범죄 취약구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용이 드문 공간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지 않는다.
- 산지 내 휴식공간, 체육공간은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수평면 및 연직면 조도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정성 및 시야 내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을 계획한다.
- 조망공간은 산지 내 고도가 높고 주변에 수목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개방적 구간에 배치한다.
- 산책로는 보행 분위기를 위해 창백한 흰색보다는 2,800 ~ 3,500k 정도의 색온도를 적용한다.



개방적 공간 내 설치된 체육시설



주 보행로와 연계한 설치 위치



개방적 구간 내 배치

산지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여 다채로운 휴식공간 조성

- 계절에 따라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명을 연출한다.
- 생태 보전을 위해 직접조명방식 대신 간접조명방식을 채택한다.
- 덩굴성 식물을 이용하여 휴게공간 내 입면 녹화와 지피식물을 사용한다.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조명 연출



은은한 간접조명방식 채택



직접조명방식 적용 지양

● 필수 ○ 권장

공공시설물

안내시설물

주야간 동선 인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확충

- 계단, 급경사가 빈번한 구간에는 방문객이 공간 여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진입부에 바닥 사인물, 지주형 사인물을 설치한다.
- 산지 진입부 안내시설물은 야간에도 보이도록 부분 조명을 함께 설치한다.
- 조명시설은 수목과 적절한 간격을 확보한다.
- 조명시설은 바닥을 비추는 형태와(등근 원형으로 빛이 발산되는 조명시설 배제) 파손 방지를 위한 내구성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 보도 단절구간에는 몇 m 이동 시 갈맷길이 연결되는지 안내하는 사인물을 설치한다.



바닥 사인물 설치



부분 조명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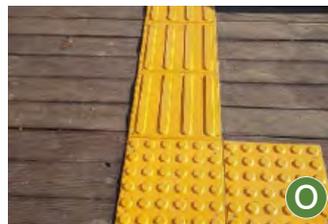
단절된 거리를 알 수 없는 사인물

모든 방문객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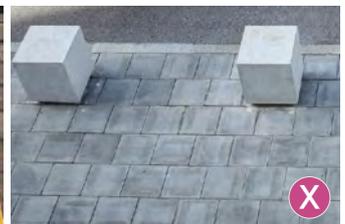
- 이용자의 편리한 통행을 위해 25m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방향 안내사인물과 보행등을 배치한다.
-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험한 곳에는 접근제한, 방향유도 등을 위한 점자블럭, 난간, 보호대 등을 배치한다.
- 갈맷길 주요 진입부에는 방문객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낮은 볼라드나 화분 등 보행장애 요소는 제거한다.



방향 안내사인물 설치



점자블럭 배치



주 진입부 내 보행장애 요소 설치

● 필수 ○ 권장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사인 계획

- 종합안내사인은 시작점 일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등 통행이 많은 구간 내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
- 종합안내사인에는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정보를 포함한다. (경사진 산책로의 경우 경사 정도를 표시하여 이용성을 증진한다.)
- 산책로 내에서는 교차점, 휴식공간 주변 등 보행자가 진행방향을 혼란스러워할 공간에는 2개소 이상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 산책 코스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과 그림을 활용하여 정보를 표기한다.
- 지도를 삽입할 경우 현위치를 반드시 표시하고 이용자가 바라보는 방향과 안내사인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표기한다.
- 안내시설 노후화 및 정보 변경사항은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안내시설물은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위급상황 시 활용성을 강화한다.
- 시종점, 교차부에 설치된 도보 인증대에는 점자 표기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어를 병기한다.
- 갈맷길 안내를 위한 부착형 스티커와 지주형 안내사인물 통합으로 정보를 간결화한다.
- 안내표지판은 인지성 확대를 위해 양각으로 제작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역 표기



픽토그램 활용



지도 활용 시 현위치 표기



다국어 표기



안내사인물 통합 조성



다국어가 병기되지 않은 인증대

● 필수 ○ 권장

안전시설물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 계획

- 주요 교차로마다 119 구급함을 배치하여 긴급 상황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24시간 운영되는 CCTV를 설치한다.



119 구급함 배치



24시간 운영되는 CCTV 설치



사각지대 내 CCTV 부재

가로시설물

개방적 시야 확보를 위한 수목 관리

- 수목은 정기적인 가지치기를 통해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수고 2m 이상인 교목은 지면으로부터 1.5~1.8m 부분까지 식재를 정리하고 시야를 확보한다.



시야를 방해하는 수목



정기적인 가지치기 진행



개방적인 시야 확보

● 필수 ○권장

갈매길(도심형)

현황 및 문제점

공공공간

1. 기존 시설물과 연계성 부족

- PM 거치대, 블라드, 분전함 등의 장애물이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 보도가 부재하거나 과도하게 협소한 공간이 다수 존재한다.
- 블라드가 과도한 수량으로 조성되거나 장식적인 시설물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한다.



공공시각매체

1. 인식하기 어려운 구간 안내표지

-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인해 정보 표지 인식성이 저하된다.
- 옥외광고물 등 주변 시설물로 인해 안내표지를 찾기 어렵다.
- 정보 표지 전면 불법주차로 인해 정보 인식성이 약화된다.
- 비슷한 색상의 전신주에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시인성이 저하된다.



기본방향

- 안내사인물 디자인 및 배치 개선으로 동선 인지성을 강화한다.
- 보도, 자전거도로를 점유한 시설물 최소화로 편의성을 증진한다.
- 보도 유효폭 확보로 방문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 가로시설물, 조형물의 조형성을 최소화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유도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가이드라인 분류	대분류	소분류	페이지번호
공통가이드라인	공공공간	도로 - 보도	p.28
		도로 - 자전거도로	p.33
특화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보행로	p.116
		안내시설물	p.117
		편의시설물	p.118
		가로시설물	p.119



(안내시설물)
 ·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물 확충
 · 정돈된 갈매길 조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적용

(편의시설물)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 과도하게 장식적 이미지 연출 최소화

(가로시설물)
 · 역사문화자원의 정체성 강화

(보행로)
 ·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로공간 연출
 · 갈매길만의 스토리를 담은 테마공간 조성

공공공간

보행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로공간 연출

- 자전거도로 최소폭 1.2m, 보도 최소폭 1.5m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자전거도로 조성은 지양한다.
- 판매시설 등 건축물의 상업용 용도로 쓰이는 테라스는 공간의 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자와 상업시설 이용객의 혼재를 완화한다.
- PM 거치대 등 가로시설물이 설치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 보도가 4m 이상인 구간은 자전거도로 외에 PM 전용도로 구간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는 가로



건축 한계선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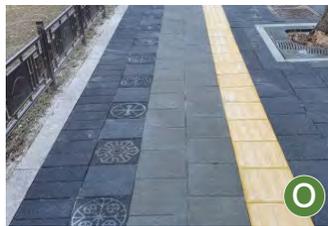
PM 거치대 공간 별도 마련

갈맷길만의 스토리를 담은 테마공간 조성

- 역사문화자원과 연접한 유휴공간, 건축물 전면공지, 교통섬 등의 결절점에 방문객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테마쉼터를 조성한다.
- 역사문화자원 주변 보도 노면에는 자원의 정체성을 담은 패턴 디자인을 적용한다.
- 보도 패턴 적용 시 주변과 조화를 위해 간결한 디자인과 무채색 사용을 권장한다.



역사 테마쉼터 조성



역사 패턴 디자인 적용



색상이 있는 패턴 적용

● 필수 ○ 권장

공공시설물

안내시설물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물 확충

- 사인 시설물의 보도 점유면적 최소화를 위해 보도가 2m 미만인 구간에는 진입부, 결절부에만 종합안내사인물을 배치한다.
- 골목길 주정차 방지를 위해 도심형 갈매길 보차도 경계부에 주차금지 시설물을 일괄 배치한다.



정돈된 갈매길 조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적용

- 도심갈매길 동선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안내사인물은 일관적 디자인으로 통일한다.
- 보도가 2m 미만인 공간에 설치되는 방향 안내사인물은 타 시설물 지주에 통합형으로 부착한다.



● 필수 ○ 권장

편의시설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사용 빈도와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소수량으로 통합한다.
- 상업거리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20x 이상이 유지되는 조명으로 설치한다.
- 주거지 주변의 빛공해 방지를 위해 보행등, 바닥등을 설치한다.
- 보도가 2m 미만인 거리의 블라드, 화분, 벤치는 통합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도 점유공간을 최소화한다.
- 거리 내 체류시간 향상을 위해 보도 폭이 2m 이상인 거리의 곡각부, 교차로에는 방문객이 쉴 수 있는 벤치를 배치한다.



20x 이상 유지되는 조명 설치



빛공해를 방지하는 보행등



바닥등 설치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 지속 가능한 가로경관 디자인을 위해 벽화는 도장형보다 입체 구조물 부착형을 권장한다.
- 도심 내 흉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상징 조형물 설치 시 과도하게 사실적인 형태를 지양한다.



방문객 쉴 수 있는 벤치 배치



벤치 및 블라드 통합



사실적인 형태 적용

● 필수 ○ 권장

과도하게 장식적 이미지 연출 최소화

- 역사문화자원 주변 담벽에 벽화 조성 시 고채도 색채 페인트를 지양하며 3색 이내로 활용한다.
- 상징조형물 설치 시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고채도 색채 페인트 사용



3색 이내로 색채 활용



고광택 재료 사용

가로시설물

역사문화자원의 정체성 강화

- 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의 일관된 이미지 연출을 위해 분전함 입면, 가로등 지주에 특색있는 이미지를 통합 적용한다.
- 가로등 지주, 안내사인물에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를 위한 기능성 도료를 사용한다.
- 역사문화자원과 일관된 이미지 연출을 위해 가로시설물은 목재, 석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가로등 지주에 역사 패턴 적용



특색있는 이미지 적용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 필수 ○권장

공동체 도시
가이드라인

PART.3

공동체 도시 가이드라인

산복도로

정의 · 산의 중턱을 지나는 도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경사지까지 개발이 이루어지며 가장 위쪽에 자리한 도로를 의미한다.

표본대상지 선정 1차 선정

- 부산 전체도로 현황 중 보조간선도로를 도출하고 해발고도 50m 이상 구간의 능선을 따라 형성된 도로를 추출하였다.
- 그 중 대중교통(버스, 마을버스)이 지나는 통과도로를 파악하였다.

2차 선정

- 1차 선정에서 미도출된 도로 중 역사성 및 장소성을 가진 도로를 포함하여 부산 대표 산복도로 10개소를 추가하였다.
- 수정산 일원, 봉래산 일원, 황령산 일원, 금정산 일원, 장산 일원 등 총 5구간의 산복도로를 도출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공공공간

1.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가로공간

- 보행로와 급경사 계단이 연접하고 있으나, 보호펜스 등 안전시설물 부재로 보행객 안전사고를 야기한다.
- 거주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보행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나,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른 계단 내 쉬어갈 수 있는 편의 시설이 없다.
-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공간이 많으나, 골목길 내 비상 소화 설비가 부족하다.
- 경사지에서 도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시설물이 미흡하다.
- 도로 교차점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사지가 조성되어 있다.



2.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옥상주차장

- 건물 지붕을 활용한 옥상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차 차량의 낭떠러지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한다.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추락 방지시설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한다.
- 차량보다 낮게 조성된 턱으로 인해 낭떠러지 추락사고를 유발한다.
- 미관을 해치는 유광 바닥재질을 적용한다.



공공시설물

1. 보행방해 및 편의성이 저하되는 버스정류장

- 보행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보행을 방해한다.
- 공공시설물이 지주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되지 않아 혼재된 인상을 조성한다.
- 보행로와 연계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 버스정류장과 안내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보행로 대부분 공간을 차지한다.
- 냉·난방시설이 조성된 버스정류장이 부재하여 이용자 편의성이 저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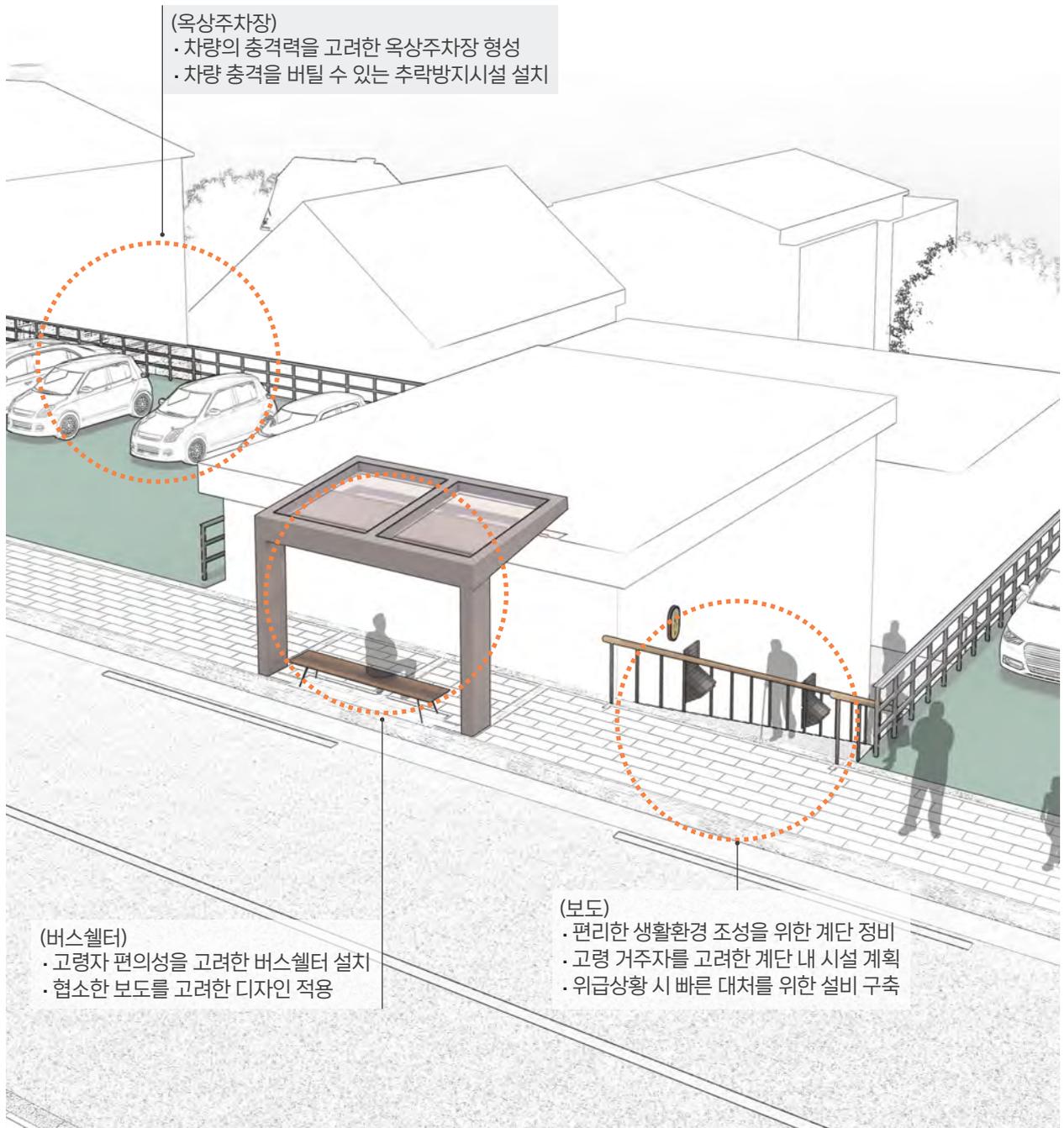


기본방향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협소한 보행로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구축한다.
- 경사길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물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 협소한 보행환경에 맞는 시설물 디자인을 통해 정돈된 생활환경을 구축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가이드라인 분류	대분류	소분류	페이지번호
공통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도로 - 보도	p.28
		기타공간 - 옥외주차장	p.69
	공공시설물	교통관련 시설물 - 버스쉘터	p.128
		교통관련 시설물 - 펜스	p.138
		교통관련 시설물 - 옹벽	p.149
		편의시설물 - 벤치	p.172
		범죄 및 안전시설물 - CCTV	p.226
		범죄 및 안전시설물 - 보안등	p.229
		범죄 및 안전시설물 - 비상벨	p.232
		특화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옥상주차장	p.129
	공공시설물	버스쉘터	p.130



공공공간

보도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계단 정비

- 계단은 보행 유효폭 1.2m 이상을 확보한다.
- 계단 정비 시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첩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계획한다.
-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단 설치 시 바닥면에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는 계단 참을 계획한다.



보행 유효폭 1.2m 이상 확보

적절한 디딤판 너비 및 첩면 높이

계단 참 부재

고령 거주자를 고려한 계단 내 시설 계획

- 경사로는 보행 유효폭 1.2m 이상을 확보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며, 경사로 길이 30m 이내마다 1.5m 이상의 수평 참을 계획한다. (단, 높이 차이 1m 이상 등으로 지나치게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수직이동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설치한다.)
- 계단 참과 경사로 수평 참에는 어르신이 쉬어갈 수 있는 접이식 의자를 배치한다.
-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 재료를 적용한다.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계단코는 인지성 강화를 위해 주변과 쉽게 구별되는 색상이나 재질로 마감한다.
- 대지 레벨이 변화되는 지점(경사로, 계단 등)에는 색상 및 재질 차이를 활용하여 바닥 경고 시설을 설치한다.
- 계단과 경사로 양측에는 2단형 손잡이를 설치한다.



경사로 보행폭 1.2m 이상 확보

수직이동 엘리베이터 설치

접이식 의자 배치

● 필수 ○ 권장

위급상황 시 빠른 대처를 위한 설비 구축

-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골목에 비상 소화설비를 구축한다.
- 화재 설비 이용성 강화를 위해 접이식 의자와 비상 소화설비를 통합하여 배치한다.



비상 소화설비 구축



비상 소화설비 구축



의자와 통합 배치

옥상주차장

차량의 충격력을 고려한 옥상주차장 형성

- 효과적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옥상주차장의 외벽면은 16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볼라드, 주차방지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한다.



외벽면 160mm 이상 계획



추락사고 방지하는 위치 설치



외벽과 볼라드 사이 간격 부재

● 필수 ○ 권장

차량 충격을 버틸 수 있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2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다.
- 그 외 사항은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 안전한 옥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차방지턱, 안전난간, 볼라드를 구축한다.
- 차량 추락방지를 위해 1m 이상의 안전난간을 조성한다.



추락방지시설 부재

볼라드 부재

1m 이상의 안전난간 조성

공공시설물

버스쉼터

고령자 편의성을 고려한 버스쉼터 설치

- 보도 폭 1.5m 이하인 경우 버스 표지판, 노선 안내판만 설치한다. (단, 이용객이 많은 버스 정거장의 경우 버스쉼터를 설치하되 옹벽 부착형 등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협소한 보도를 고려한 디자인 적용

- 보행 방해 최소화를 위해 보도방향으로 승차대를 설치하는 역상형 승차대로 디자인한다.
- 이용객 안전성 확보와 함께 주변 주거지로의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센서등을 설치한다.



옹벽 부착형 버스쉼터

태양광 센서등 설치

역상형 승차대 디자인

● 필수 ○권장

INTRO

수변도시

보행친화도시

공동체 도시

실행력 확보방안

실행력 확보방안

PART.4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한 방안

134

도시 비우기 사업

135

실행력 확보방안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한 방안

개요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실행과 운영을 위한 공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필요성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개선에 대한 수요는 차량 중심의 도시로서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 체계적인 연결 또는 교육 및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부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생태 환경적 공공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측면의 개선이 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표준화를 마련하고 지자체 16개 구·군들이 이를 제공 받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공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 정체성 부여가 어려운 시설물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활용하여 공공디자인 계획 및 사업 추진 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비우기 사업

개념

· 도시비우기란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도시시설물은 철거하여 거리를 '비우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들은 통·폐합하여 시설물의 공간을 '줄이고' 오래되어 노후·부식·훼손된 시설물은 유지 및 보수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신규시설물 설치계획 시 최소·최적 설치를 통해 거리를 '미리 비우는' 부산광역시의 자연생태 환경적 공공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이다.

현황 및 문제점

1. 관리기관 및 관리부서가 다른 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보행공간 축소

- 도시철도 진입공간 인접부에 관리기관이 상이한 관광안내시설물과, 전신주 등의 설치로 정보전달이 어렵다.
- 전신지주 내 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가 통합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의 타 시설물들로 인해 정보의 인지성이 저하되고있다.
- 인도 내 불법광고물들이 노출되어있어 보행의 저해 요소로 작용된다.

2. 기능에만 중심이 된 나열식 시설물 조성으로 도시미관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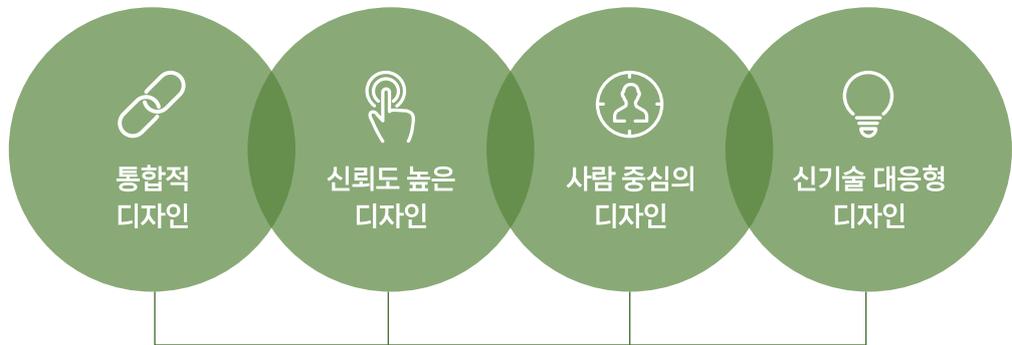
- 도시철도 지주 안내사인, 부산 관광 안내사인, 방향안내사인, 도로명 안내사인, 보행안전표식 등 각 기능 중심적 시설물의 나열로 인해 산만한 경관을 형성한다.
- 생활정보지 배포함 등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다.



**도시비우기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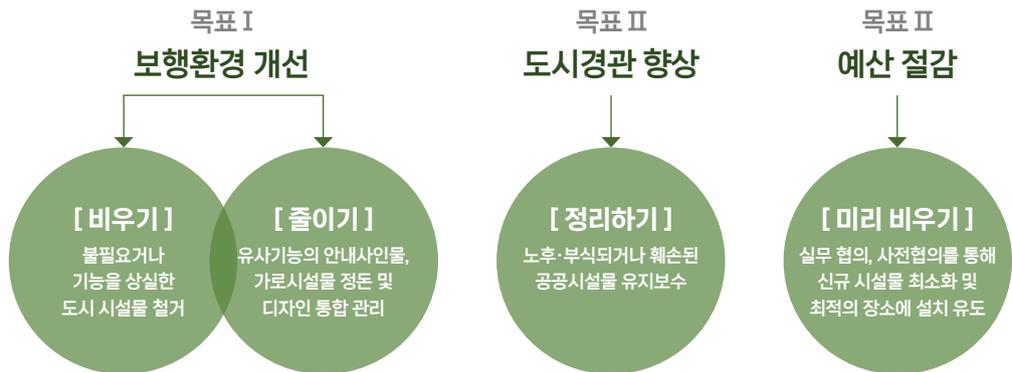
- '도시비우기' 사업은 부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을 기초로하여 연계한다.
- [비우기]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도시시설물은 철거한다.
- [줄이기]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시설물 디자인 통합하여 관리한다.
- [정리하기] 노후·부식·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한다.
- [미리비우기] 실무협의회 사전심의를 통한 신규시설물 최소·최적의 장소에 설치한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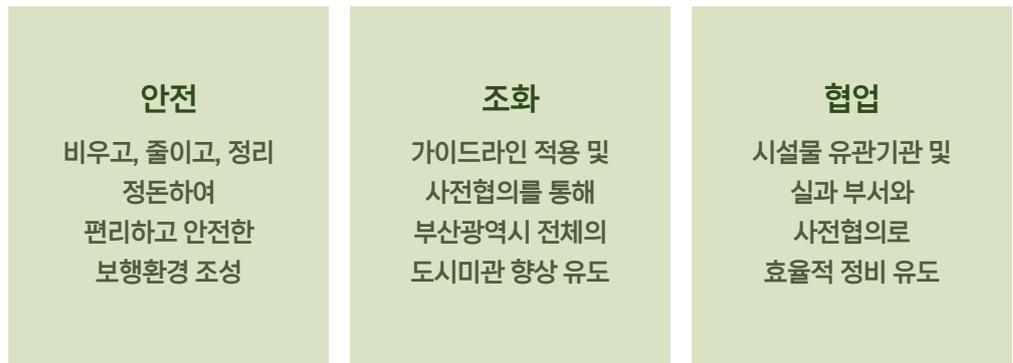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과 연계된 도시비우기 목표 확립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

**도시 비우기
목표**



도시 비우기
추진원칙

· '도시비우기' 추진원칙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유관기관 및 실과부서간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을 비우고, 줄이고, 정리정돈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전체의 도시미관향상을 유도한다.



도시 비우기
추진방향



**도시 비우기
추진방법 제안**

- 도시의 시설물 비우기 관련 업무 효율성 및 신속성 향상 유도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실무진으로 조직된 전담팀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함을 제안한다.

1. 도시 비우기 전담팀 신설(안)

- 현재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공공도시디자인과 내 도시 비우기 관련 주무관은 1명 내외로 업무 효율성 부족
- 도시비우기를 위한 담당업무 인력 확충 및 세부업무 분담을 위한 팀으로 전환 필요

- 팀명** · 공공도시디자인과(도시비우기팀)
- 인원** · 팀장 1명 및 팀원 3명
- 기능**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및 유관기관의 도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 도시 비우기 관련 단계별 선도사업 발굴 및 기획
 - 도시 시설물 관련 부서별 업무 총괄, 협의체 관리 및 조정

2.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주변환경과 공공시설물 간의 조화성, 관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임
- 관리기관이 다른 공공시설물 통합 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 실무협의회 구성** · 감사담당관, 건설행정과, 공공도시디자인과, 도시철도과, 보행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관광진흥과 등 필요시 해당 유관기관 참여 유도
- 유관기관 참여 유도** · 부산교통공사,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 유관기관 협약(MOU) 체결

01.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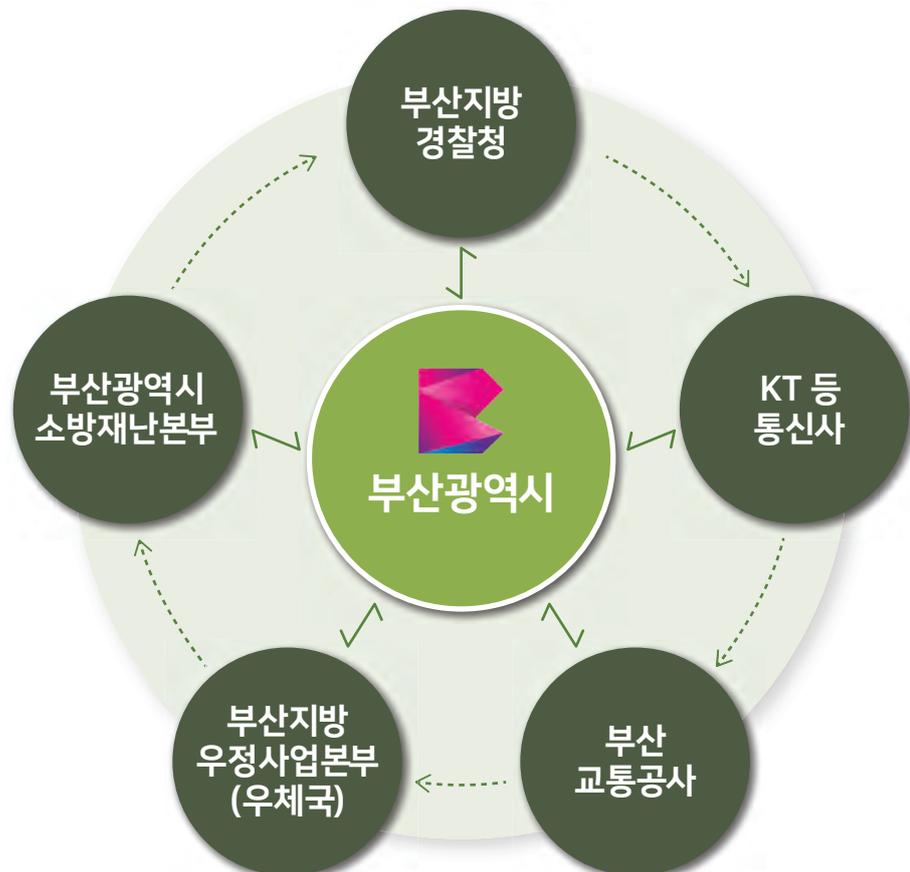
대 상 · 부산광역시 + 부산지방경찰청 + 부산교통공사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내 용 · 교통안전시설물 통합·정비 및 합동 점검 추진
 · 부산광역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교통체계, 안내사인물 디자인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성 강화를 위한 도로환경 및 시설물 정비
 · 교통표지판과 주변 시설물 정비를 위한 분야별 자문 네트워크 운영

02. 보도상 시설물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 상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 부산지방 우정사업본부(우체국) + KT 통신사

내 용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설 이용률 저하 및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우편시설물 (EX. 우편함), 공중전화부스, 소방용수시설물 등의 철거
 · 변화된 도시 환경에 조화되는 형태로 디자인 정비
 · 가로 환경, 보도 폭 등 주변의 여건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실무진 협의 및 회의 운영



**도시 비우기
통합시설물(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 중 유사한 기능통합 또는 지주통합, 구조물 통합이 가능한 시설물을 제안한다.
- 그 밖의 현황여건 상황에 따라 통합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 기능통합 권장 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 분전함은 도로 시설물의 전력 관리를 위한 시설물로서 필수적이거나, 과도한 크기 조성 및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 보행안내표지판, 분전함 등 보행로 위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쾌적한 보행 유효폭을 확보하기 어렵다.
- 가로등·보안등과 배전함이 개별적으로 조성되어 정돈되지 않은 도시환경을 구축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CCTV 등의 안전 시설물이 개별 지주로 조성되어 운전자의 시각적 혼란을 야기한다.



관련사례

- 가로등, 가로등주, 분전함을 통합적인 형태로 조성하여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던 시설물을 하나로 조성한다.
- 보행안내표지판과 분전함·배전함을 병합하여 넓고 쾌적한 보행가로를 확보한다.



- 신호등, 옐로카펫, 바닥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 시설물을 통합 조성하여 운전자의 정보 인식성을 강화한다.



통합 기본방향

- 분전함, 가로등 및 보안등 등 크기가 큰 시설물 간 통합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한다.
- 보행안내표지 내부에 분전함을 부착하여 융합 보행안내표지를 조성한다.
- 통합지주, 스마트 폴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간 통합 조성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 및 정보 인식성 강화를 계획한다.

통합시설물(안)

- 가로등 내 관련 시설물인 가로등주, 분전함을 통합한 '융합 분전함', 보행안내표지판 내부에 분전함 기능을 추가한 '보행안내사인 분전함',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단일 지주에 통합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통합형'을 계획한다.

융합 분전함(안)

가로등 + 보안등 + 가로등주 + 분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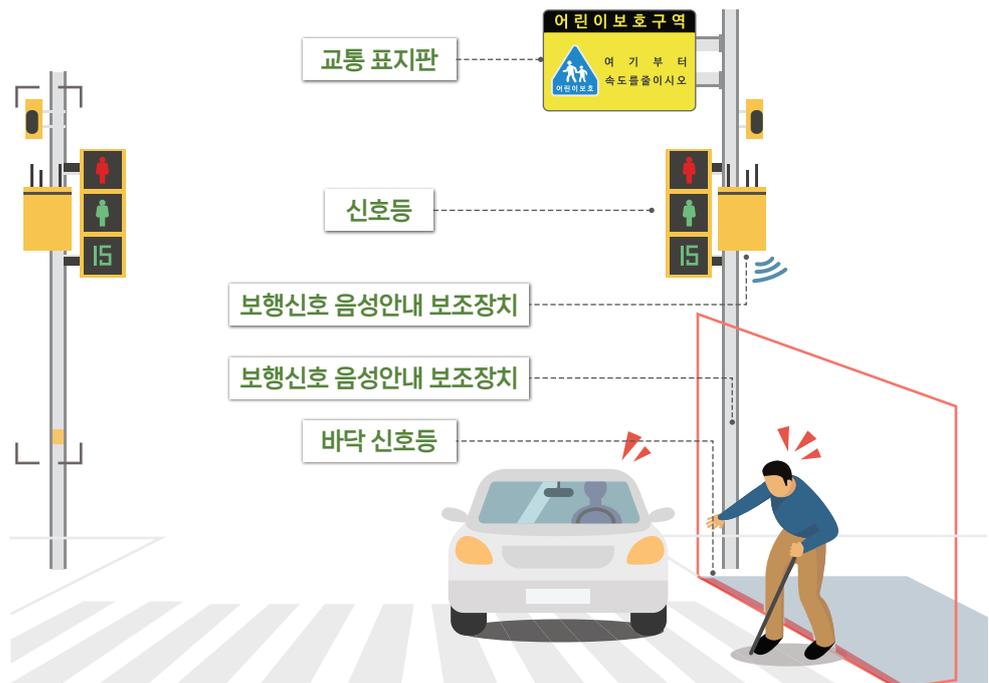
보행안내사인 분전함(안)

분전함 + 보행안내표지판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통합형(안)

신호등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 옐로카펫 + 바닥 신호등



2. 지주통합 권장 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 신규 신호등 구축 시 해당 구간 내 교통표지 안내판 지주가 기 구성되어 있으나, 개별적으로 지주를 추가 설치하여 다량의 지주가 거리에 놓여 있다.
- 신호등 뒤로 교통표지가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 시야에서 인식하기 어렵다.
- 교통단속을 위한 CCTV가 거리에 난립되어 있다.
- 다양한 지주가 거리 내 구성되어 운전자의 표지 인식 순위가 모호하다.
-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CCTV가 다수 조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미흡하다.
- CCTV와 비상벨 간 간격이 넓어 위급상황 시 사용성이 저하된다.
- 야간조도가 확보되지 않는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하여 방범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관련사례

- 신호등과 가로등이 함께 포함된 지주를 구성하여 보행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축소한다.
- 주변 교통 표지판을 단일 지주에 통합하여 운전자의 정보 인식성을 명확히 한다.
- 교차로 교통섬에 두 방향 신호등이 포함된 지주를 설치한다.
- 비상벨, CCTV, 위치 안내사인, 고보조명 등 다양한 방법 시설물이 융합된 통합 지주를 설치하여 시설물로 인한 보행가로 부피감을 최소화한다.
- 기 조성된 가로등 지주에 CCTV 지주를 부착한다.



통합 기본방향

- 도로 표지판, 사설 안내표지판, 가로등 등 도로에 포함된 시설물을 통합하여 보도 내 설치되는 지주를 최소화한다.
- 보행자가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을 CCTV와 함께 조성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통합시설물(안)

-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 등 교통관련 시설물을 통합 조성한 '교통관련 시설물 통합형'과 보행자가 신속히 범위에 대처할 수 있는 '범죄안전 시설물 통합형'을 계획한다.
- 통합형 시설물이 설치되는 도로 여건에 따라 포함되는 시설물은 유동적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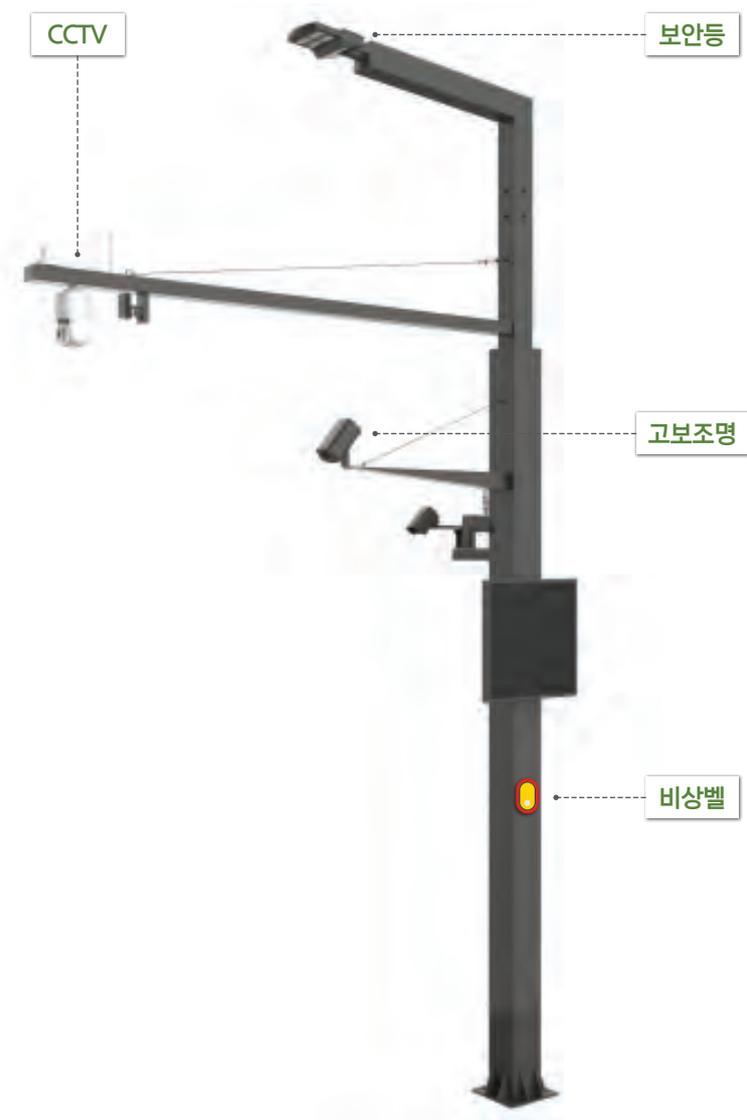
교통관련 시설물 통합형(안)

가로등주 + 신호등주 / 가로등+교통표지 / 안내표지+교통표지 / 신호등 + 가로등 + 도로표지판



범죄안전 시설물 통합형(안)

가로등 + 보안등 + CCTV + 비상벨 + 고보조명



3. 구조물 통합 권장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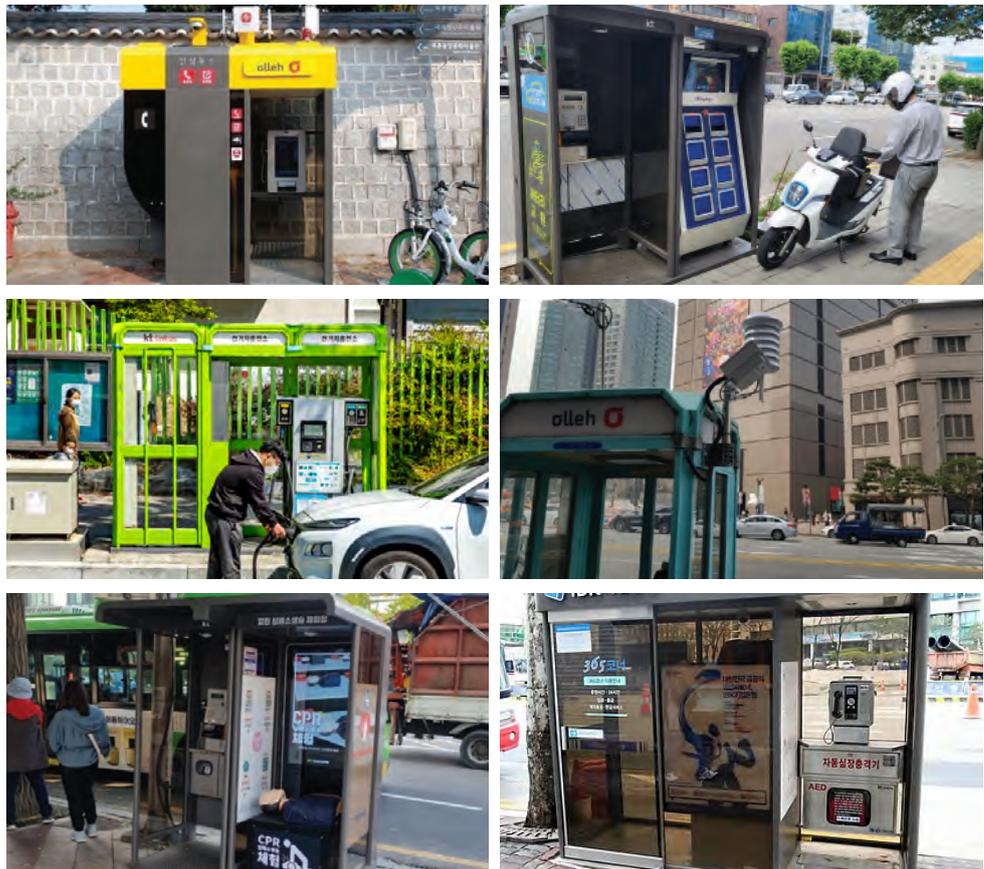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중전화박스는 보편적 통신서비스 보장을 위해 이용성이 저하됐으나 철거할 수 없는 시설물이다.
- 대부분의 공중전화박스는 이용객이 부재하여 방치된 인상을 조성하며, 시설물의 크기로 인해 보행가로를 침범한다.
- 공중전화박스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아 필요 시 인지하기 어렵다.
- 주변 시설물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방치된 인상을 조성한다.
- 노후화된 공중전화박스가 방치되어 어두운 도로 분위기를 형성한다.
- 버스쉘터 주변에 공중전화박스가 위치하여 버스정류장이 차폐되어 인지성이 저하된다.
-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보행객이 많은 거리에 조성되어 낮은 이용성을 형성한다.



관련사례

- CCTV, 비상벨을 설치하여 보행객이 많지 않은 공간 내 안전성을 확보한다.
- 공공와이파이를 공중전화박스 상단에 구축하여 연속성 있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
- 도로변 위치한 공중전화박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와 결합하여 이용성을 증진한다.
-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구와 체험방법을 알려주는 영상표시기를 설치하여 방치된 공간이 아닌 활력있는 공간으로 도모한다.
- 공간이 협소한 구역 내 설치된 공중전화박스에 공기질 측정기를 상단에 부착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
- 공중전화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조성한다.



통합 기본방향

- 이용객을 증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방치된 인상이 아닌 활력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통일성 있는 디자인 적용으로 필요 시 인지하기 쉽도록 계획한다.
- 협소한 골목길, 보행객이 드문 공간 등 위험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는 위치에 범죄예방 시설물이 포함된 공중전화박스를 배치한다.
- ATM 등 시민 생활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다.
- 보행객 수에 비해 보행가로는 좁은 공간에 위치한 공중전화박스는 주변 시설물과 통합하여 조성한다.

통합시설물(안)

- 범죄예방 시설물 및 공유배터리 충전소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시설물과 결합한 '공중전화부스 통합형'을 계획한다.

생활시설 통합형

공중전화부스 + ATM기기 / 공중전화부스 + 공유배터리 충전소 / 공중전화부스 + 심폐소생술 응급 시설물 + 비상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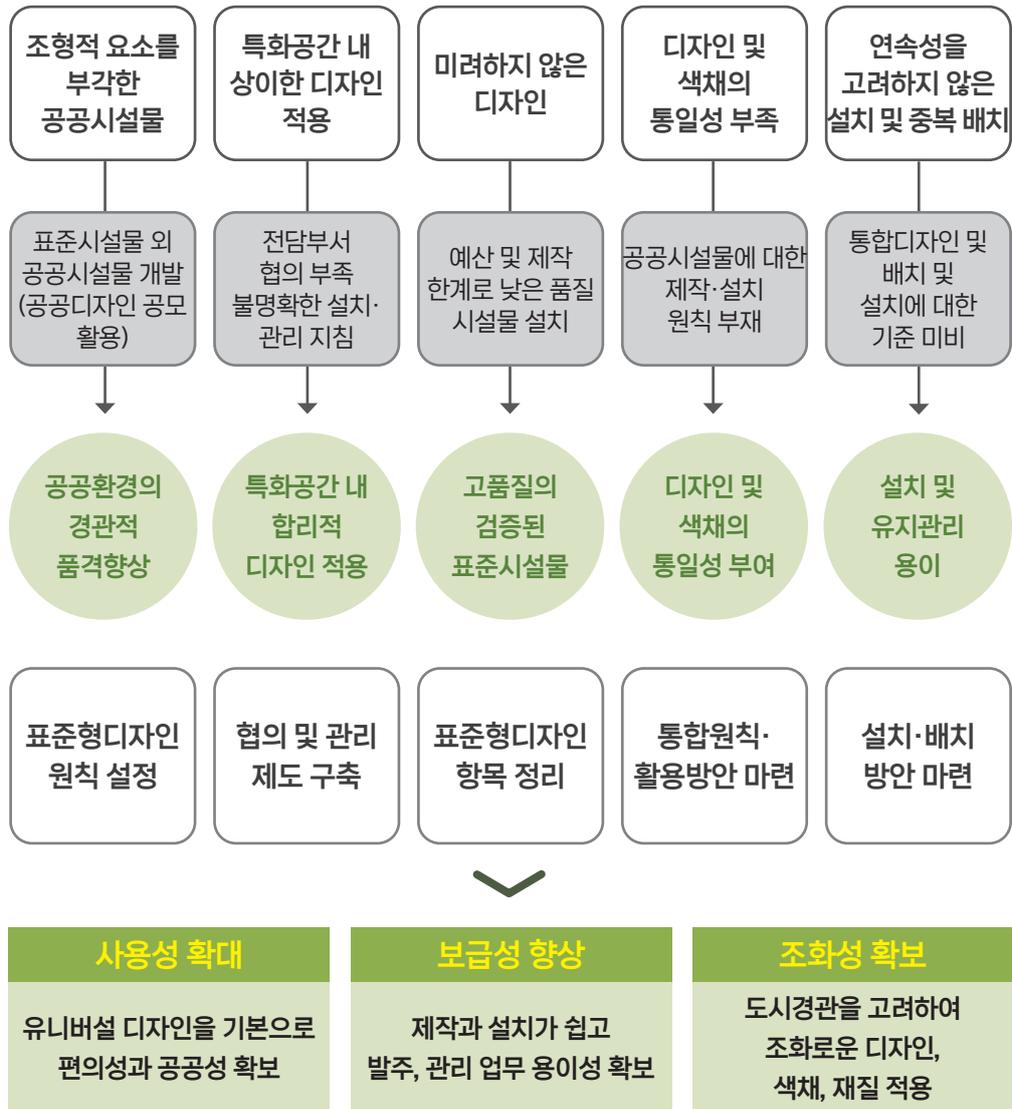
2. 부산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안)

개념

- 부산광역시 전역에 공공시설물의 적용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적으로 적용 또는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표준을 '표준디자인 (standard design)'이라 한다.

필요성

- 가로시설물의 설계·설치 시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하기 위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필요하다.
- 부산시 내 시설물 교체 또는 제작 설치 시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의 통합과 디자인 개선을 유도 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 극대화 및 품격 있고 차별화된 도시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



3.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도입(안)

개념

-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선정·장려하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수디자인 인증제 필요성

- 지방계약법상 계약심사 등의 편의로 조달물품에서 시설물을 선정하여 사용하고있으며, 인근지역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차에 따른 시설물의 디자인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의 지속적인 선정·장려를 통해 부산광역시의 정체성 정립 및 도시디자인 실현이 필요하다.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활용한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선정자격

-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과 유통 A/S 능력을 갖춘 자
- 단,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제외

인증대상

- 통합지주, 가로등, 보안등, 자전거 보관대,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 휠스, 자전거도로 휠스, 교량용 휠스, 보도블럭, 벤치, 퍼걸러, 휴지통, 음수대, 무인키오스크, 그늘쉼터 (그늘막), 맨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 덮개, 저단형 현수막계시대, 블라드 등

우수디자인 인증절차

-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부산공공디자인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산형 공공시설물 개발 촉진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공공도시디자인과

김봉철 국장

남건수 과장

김혁주 팀장

강혜림 주무관

한상윤 주무관

이영주 주무관

자문위원

김민수 (전)총괄건축가

이동흡 공원정책과 파크시티추진단장

최민준 부산디자인진흥원 도시공공디자인팀장

김용남 (주)삼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승장 시민공감디자인운영단 시민

수행기관

유원디자인연구소

노지현 대표

정상호 실장

이원희 팀장

나하나 과장

정진선 과장

이해원 대리

김경연 대리

장희주 주임

김원태 연구원